
碩士學位論文

濟州地域 經濟의 成長要因 分析

－ 變化 - 割當 模型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韓 正 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95년 12월

濟州地域 經濟의 成長要因 分析

- 變化-割當 模型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泰 保

韓 正 官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년 12월

韓正官의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고 남
委 員 김 진우
委 員 김 태보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5년 12월

**THE SHIFT-SHARE ANALYSIS OF THE CAUSES
OF GROWTH IN CHEJU REGIONAL ECONOMY**

Jung-Kwan Han

(Supervised by professor Tae-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5. 12.

목 차

I. 서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II. 지역경제의 성장모형에 관한 이론적 접근	5
1. 지역경제의 의의와 특성	5
2. 지역경제 성장모형의 구조	7
III. 제주지역 경제의 성장에 관한 변화-할당분석	11
1. 변화-할당 분석 모형의 개관	11
2. 제주지역 경제의 변화-할당분석	21
1). 제주지역경제의 개관	21
2). 제주지역 경제의 변화-할당 분석	31
3). 제주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취약점	47
IV.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개발전략	50
1.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개발 방향	50
2.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개발 전략	52
V. 결론	65

표 목 차

<표-1> 인구추이 현황	22
<표-2> 경제활동 인구 및 산업별 취업구조 추이	23
<표-3> 년도별 지역주민 총생산(GRP)	24
<표-4> 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	26
<표-5>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27
<표-6> 가축현황	28
<표-7> 어선 세력수	29
<표-8> 주요 제조업체수	31
<표-9> 변화-할당분석(1975-1985) - 고용자수 기준	32
<표-10> 변화-할당분석(1985-1992) - 고용자수 기준	35
<표-11> 변화-할당분석(1975-1985) - 부가가치 기준	37
<표-12> 변화-할당분석(1985-1992) - 부가가치 기준	39
<표-13> 지역성장률 차등효과분석 (1975-1985) - 고용자수 기준	42
<표-14> 지역성장률 차등효과분석 (1985-1992) - 고용자수 기준	44
<표-15> 지역성장률 차등효과분석 (1975-1985) - 부가가치 기준	45
<표-16> 지역성장률 차등효과분석 (1985-1992) - 부가가치 기준	47

Summary

THE SHIFT-SHARE ANALYSIS OF THE CAUSES OF GROWTH
IN CHEJU REGIONAL ECONOMY

Han, Jung Kwan

This study is carried out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with the object of analyzing the Cheju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the Shift-Share Model. This analysis also aims at having a thorough grasp of the growth potentialities and fragilities of the Cheju regional economy, and the exhibition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study through the Shift-Share Model shows that agriculture and tourism allied industry are the steadily growing industry while most of manufacturing industries go to a downward trend. Even though the agricultural industry has been analyzed as one of the growing industries in the Cheju regional economy, it has been faced with difficulties due to the opening pressure of the agricultural product market beyond control. Accordingly, its linking developmental strategy with the tourism industry, expecting as the continuous growth industry, is strongly recommended to come to a satisfactory settlement.

The tourism industry is expected to lead the Cheju whole economy because of the fact that Cheju region is invested by enough tourism resources to satisfy the demand of the tourists. But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weakest one of the Cheju regional economy, is urgently required to meet even the demand of the Cheju regional economy. Accordingly, the general plans for activating the Cheju regional economy are as follows:

Firstly, the upbringing strategy of industry is that the agricultural industry is needed to have a sufficient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through urgent farming technical innovation. This industry is also recommended to be linked with such the tourism industry as orange farm, ranch, and forestry.

Secondly, an emphasis is laid up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meet the demand of the Cheju regional economy, and the encouragement of forstering the groceries manufacturing industry, using the local farming products. Furthermore, to promote more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another emphasis is laid upon such the promotion plan as the measures for the promotion, the facility enlargement of accommodations, and the peculiar exploitation of the tourism local produces by the local government.

Thirdly, the last emphasis is laid upon the ne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status and the strength of the monetary supporting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the Cheju regional economy.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같은 성장은 정부의 과감한 경제개발 추진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경제개발은 주로 공업화 정책으로 이뤄졌고 대도시 중심의 도시화를 가속화 시킴으로써 지역간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산업부문에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의 이와같은 경제정책의 결과는 타지역의 상대적인 성장에 반하여 제주지역은 입지조건상, 용수·용지의 확보와 동력 및 원료의 조달등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상대적인 발전의 둔화현상을 보여왔다. 또한 그간 제주지역 경제를 이끌어왔던 농업분야인 1차 산업이 농수산물 수입개방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계획수립능력의 한계와 재정부족으로 지방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주요 투자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주지역 경제를 더욱 침체화 시켰왔다. 그러나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등을 통하여 제주지역이 지니고 있는 천연자원, 인적 및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여 지역경제 전체의 성장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 지역간 균형을 이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제주지역 경제를 대상으로 경제발전을 스스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아래 제주지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성장분석 모형인 변화-할당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제주지역에 적용하여 동지역의 특징적인 성장구조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제주지역의 바람직한 장기 성장진로를 모색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각 지역단위로 자გი지역의 경제발전 방향을 스스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연구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의 변화-할당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적 특징, 즉 성장잠재력과 취약점을 파악하여 제주경제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산업개발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성장이론 및 변화-할당분석 이론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위해 국내외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제주경제의 구조적 특성, 성장잠재력과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화-할당 분석과 이의 보완적인 지역성장률차등 효과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되는 통계자료는 경제기획원의 [한국통계연보], [총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내무부의 [주민소득연보], [지방재정연람], 노동부의 [노동통계연람],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 그리고 제주도의 [제주경제지표], [제주통계연보], [도내 총생산 추계결과]등의 2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1975-1992년까지 약 16년간을 분석,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I장의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지역경제의 성장이론과 지역경제성장모형의 구조를 고찰한다. III장에서는 변화-할당 분석모형의 이론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분석기법인 변화-할당 분석과 이의 보완을 위한 지역성장률 차등분석을 도입하여 실제 2차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지난 16년동안의 제주도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취약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개발전략이 제시되며, V장에서는 분석결과와 요약 및 결론이 논의된다.

II. 지역경제의 성장모형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지역경제의 의의와 특성

지역경제는 국가경제를 형성하는 지리적 분할단위로써의 공간경제이다.¹⁾ 세계경제의 부분체계가 한 국가경제이고 이의 일부분이 지역경제이다. 다시 말하여 지역경제는 최소한 자원을 국토의 일부 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체의 경제활동, 즉 생산, 소비, 교환, 분배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같은 지역경제는 관리의 주체로 보면 크게 공공경제와 사적경제로 나뉘어진다. 공공경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행하는 경제로써 바로 지방재정을 지칭하고 사적경제는 가게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간경제를 의미한다.²⁾

또한 지역경제는 요소의 가동성으로 보아 고정부문과 유동부문으로 분류될수 있다. 고정부문은 자연자원과 고정시설로 구성되는 바, 자연자원은 토지, 하천, 임목, 지하광물과 같은 자연의 부존자원을 말하고 고정시설은 건물이나 교통시설과 같이 지상에 부착된 시설을 말한다. 유동부문은 인력, 재화, 화폐, 정보등과 같이 이동될 수 있는 것으로써 인력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이고, 재화는 생산과정에서 산출된 효용재이며 화폐는 필요한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구매력, 정보는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지식이다. 이들 요소를 기능으로 보면 자연자원은 원료의 공급원이고, 고정시설은 지원적 역할을 하며, 인력은 노동용역의 기능을 갖고, 재화는 결과물이며, 화폐는 거래의 수단이고, 정보는 활동의 촉진제이다.³⁾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에 비하여 그 규모나 활동영역이 작으며⁴⁾ 훨씬 자유, 개방성을 가진다는 특징을 부여받고 있어서 지역간 교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보다

1) 김안제, "지역경제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제 10집, 서울대 환경대학원, 1982, p.4

2) 김태보, 「제주도 관광소득의 경제효과 분석」, 제주도, 1992, pp.9-10

3) 김안제, 「전계논문」 pp.5-7

4) Richardson, H, Regional Growth Theory, London, Macmillan Press, 1973, pp. 9-13

특화된 지역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지역특화생산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생산기술 및 생산요소 부존량의 차이로 생기는 상대적 비교우위성에 근거하고 있음은 자명하다.⁵⁾ 그런데, 생산기술의 지역간 차이는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균등화 될 수 있으나 토지, 노동, 자본등 생산요소는 지역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인한 생산비의 지역간 차이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또한 가진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와는 달리 공간개념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리적 공간상에서 최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위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지역경제는 자원의 공간적 배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이다. 이에 공간 내지 지역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경제권역으로서 생산, 소비활동 또는 유통체계등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된 공간적 범위를 뜻한다.⁶⁾ 이와 같은 경제권역은 동질성, 결절성, 계획성의 기준에 의해 구획된다.⁷⁾

지역경제는 경우에 따라 국가경제의 정책목표와 상충관계의 특성을 갖는다.⁸⁾ 지역경제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국민경제성장의 극대화⁹⁾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며, 둘째는 지역간 성장 및 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형평성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성장지역으로 집중투자되는 경향이 있어서 성장과 발전을 지역적으로 균형분산 시키려는 형평성의 정책목표와는 상충관계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두 정책목표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반드시 서로 상충되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국가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따라 두가지 정책목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지역경제가 당면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와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경제는 그 경제효과를 생산, 고용, 소득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생산효과는 현재에 있어 실제로 생산해 내는 정도를 말하며, 이는 바로 일정년도에 있어서의 지역 총산물로 파악된다. 고용효과는 한 지역경제가 고용가능한 인력수준을 의미하는데, 고용량수준으로 나타나고, 소득효과는 재화

5) 박서호, 「지역발전론」, 연원출판사, 1988, p.278

6) Nourse, H.O, Regional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8, pp. 129-136

7) Richardson, H. op.cit, 1973, pp. 225-227

8) 김태보, 「전개서」, p.10

나 용역을 획득할 수 있는 구매력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지역소득으로 파악된다.

2. 지역경제 성장모형의 구조

지역경제학에서는 한 지역이 장기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왜 빠르게 성장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와같이 그동안 다양하게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이론 내지 모형이 제시되어왔다. 따라서 이들 지역 성장모형들을 분류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⁹⁾

첫째, 수요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수요측 접근이론을 대표하고 있는 경제 기반모형은 비록 지역성장이론으로서 너무나 취약하다는 결점을 갖고 있으나 지역 성장이론의 발전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오늘날 가장 세련된 지역성장모형의 하나로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 모형은 J.Keynes의 유효수요의 원리에 입각한 국민소득 결정논리와 지역간 교역원리를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있다.

또한, 지역의 수출산업의 투자수요의 증가가 지역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본다. 이때 투자승수는 케인즈 경제학에 정립된 투자승수와 같은 이론에 입각한다. 수출기반 성장이론은 케인즈 소득이론을 개방체제와 장기균형이론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수출산업부문이 유일한 외생적 변수로써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래서 동이론은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외생적 요인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이론은 지역간 개발격차가 확대될 것인가 혹은 축소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하여는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침체하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수출을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지역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함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공급측으로부터 지역의 더 빠른 성장요인을 규명해 나가는 이론이다. 이러한 접근이론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신고전파 지역성장모형은 생산투입요소와 산

9) 박문정, “지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동에 관한연구”, 「논문집」 제15집, 경남대학교, 1988, pp.8-14

출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신고전파 생산함수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수요는 가용자원이 완전히 고용되기에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산출성장율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밝힌다. 이 모형은 국가경제의 성장모형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고전학과 성장모형을 지역경제 성장모형으로 변용한 것으로써 지역간 생산요소의 이동에서 지역경제성장의 요인을 찾고 있다. 이 모형은 지역간 생산요소, 즉 노동 및 자본 부존량의 차이는 한계생산성 (marginal productivity)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데 이 요소간 한계생산성의 차이가 요소의 지역간 이동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즉 노동은 노동집약지역(lobor intensive region)에서 자본집약지역(capital intensive region)으로, 자본은 자본집약지역에서 노동집약지역으로 각각 더 높은 한계수입(marginal revenue)을 찾아 이동하며 이러한 노동, 자본의 지역간 이동은 각 지역에서의 요소한계수입이 같을 때까지 계속되어 궁극적으로 각 지역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완전경쟁의 바탕위에 생산요소의 완전이동가능성 및 수송비 부재를 가정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모형의 결과가 현실적인 지역격차 심화현상과 상반된다는 약점 및 경제기반모형과 다관가지로 거시적 총량분석모형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성장모형으로서의 이론적 한계를 갖는다.

셋째, 불균형 및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론으로써 성장거점이론(growth pole theory)은 지역이 불균형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강조하고 그 격차요인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소득의 순환 및 누적원리에 의하여 소득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구매력도 더 많아져 생산요소의 보수를 높일 것이며, 따라서 그 지역은 더 많은 집적력이 형성되어 빠른 성장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지리적 조건들은 중심지역의 비교우위성을 누적적으로 개발시켜 결국은 중심지역의 번영과 배후지역의 그것이 다같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허쉬만 (A. Hirschman)과 뮐달(K.G.Myrdal)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지역경제 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전되고 이들은 상호 인과관계에 의하여 발전해 간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경제는 지역간 균형으로 도달해왔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으로 도달해 왔고 지역격차를 확대시켜 왔음을 볼 수 있다. 뮐달은 어느 국가에서나 지역의 불균형 발전 그리고 개발지역과 저개발

발 지역간의 생산성의 격차등을 조정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반면, 허쉬만은 그의 계열화 분석에서 저개발 지역이나 국가는 지역간 상호 의존성이나 상호연계성이 취약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천연자원 지향적인 1차산업은 계열화가 매우 빈약하고 전방 연계와 후방연계에 약하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기계공업은 이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렇게 산업간 연계성이 빈약한 산업으로 특징되는 지역은 발전의 속도가 대단히 느린 것이다. 이 모형은 후에 칼도우(N.Kaldor)¹⁰⁾에 의해서 대폭 보완되었으며 특히 1인당 지역소득 격차확대(divergence)의 원인을 풍요지역의 집적경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모형의 장점이다.

넷째,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찾는 성장모형으로써 산업구조 성장론은 지역이 내재적으로 갖고있는 부문 또는 산업의 구조적 차이가 지역성장의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는 성장이론이다. 전국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는 산업부문을 더 많이 가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한다는 기본가정에 입각하고 있는 산업구조 성장론은 산업부문별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지역체계 분석의 한 출발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구조 성장론의 중요한 가정은¹¹⁾ ① 경제활동의 양적인 성장은 지역후생의 측면에서 보다는 경제활동의 집중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경제성장은 하나의 발전적 현상으로써, 과거의 경제활동과 경제행위의 의사결정이 현재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 그리고 ③ 지역성장의 유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외부의 시장조건에 따라 기업입지와 규모를 여하히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구조변동론에 의하면 지역자원도 동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의 이론적 근거는 자원, 경제활동 그리고 고용등 모든 면에서 연계적 계열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들 요인은 지역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전문화의 정도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다. 급진적인 자주성장은 지역산업의 중요성이 어떠한 방향에서 강조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이는 지역의 투입-산출 접근 모형을 이용한

10) Kaldor N, "The Case for Regional Policies",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0, pp. 337-347

11) 최재선, 「지역경제론」, 법문사, 1985, pp.406-408

최종수요 구성인자로서의 독자적인 성장예측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역성장을 외생적으로 결정짓는 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특히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이 발전해 감에 따라 지역산업의 중요성은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이전해 간다고 보는 산업부문성장 이론이다.¹²⁾ 산업의 중요성은 전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에 대한 개별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산업간 상대적 중요성은 해당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노동생산성의 불균형적 증가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소득의 증가는 자원이 1차산업에서 2차산업,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이동되어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물론 지역내의 노동의 전문화와 분업을 토대로 하여 나타난다고 보고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수요의 외연적 이동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동 이론에 의하면 산업별 고용구성비의 크기가 1차, 2차 그리고 3차산업의 순위로 이동되어 감에 따라 지역은 성장해 간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규모보다는 지역규모에서 산업특화가 보다 쉽게 이뤄지고, 지역산업의 자원자원에의 의존도가 국가산업에의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높기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산업의 중요성이 반드시 3차산업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같은 이론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동 이론은 지역산업부문별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분석의 한 출발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되고 있다. 동이론에서는 지역산업구조, 수요의 소득탄력성, 그리고 생산성등의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내부의 경제성장의 제관계를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그 이론적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상술한 성장모형 가운데 위의 단점들을 보완한 변화-할당 분석모형의 이론을 고찰하고, 동 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제주경제의 구조적 특성 및 성장요인을 고찰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분석 틀로써 채택하고자 하는 이 모형은 지역의 특수한 경제구조와 부문들이 상이한 국가적 성장률을 설명하는 지역 고용 또는 소득변화 개념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기준 경제로써의 전국과 비교경제로써의 지역의 상대적 성장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입된다.

12) 최재선, 「상계서」, pp.405-406

III. 제주지역 경제의 성장에 관한 변화-할당분석

1. 변화-할당 분석 모형의 개관

변화-할당분석모형(Shift-Share Analysis Model)은 지역경제의 성장분석을 위한 전통적분석 기법중의 하나이다. 동 분석모형은 1942년 크리머(D.B.Cremer)가 미국 국립자원기획위원회(U.S.National Resources planning board)를 위한 연구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1960년대 초반에 애쉬비(L.D.Ashby) 던(Dunn, E.S., Jr), 퍼크(Fuchs, V.R.)에 의해서 기술적 이론이 개발되었으며, 퍼롭(H.S. Perloff), 던(Dunn, E.S., Jr), 램파드(Lampard, E.E), 뮤드(R.F.Muth)에 의해서 분석도구로서 보다 체계화 되어졌다.

변화-할당 분석모형을 개발하게된 원래의 목적은 국가경제정책이 실시될 경우 각 지역경제가 받는 영향을 평가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지역경제의 성장요인의 규명과 함께 지역성장의 예측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변화-할당분석모형을 지역간의 성장격차와 잠재력분석에 응용한 사례는 크리머가 최초로 개발한 이후 많은 지역에서 경제분석모형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¹³⁾

1) 변화-할당 분석 모형의 개념

변화-할당분석 모형은 일정기간동안 지역의 성장이 지역산업의 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그 성장원인을 지역의 산업부문별간 성장율의 변화에서 찾으려 한다. 즉, 한 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화, 성장해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발전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경제구조를 이해하는데 비교적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¹⁴⁾ 이 분석모형은 지역경제성장의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¹⁵⁾ 현재의 산업구조적 특성과 성장잠재력하에서 각 지

13) Henry W. Herzog, Jr. and Richard J. Olsen, "Shift-Share Analysis Revised: The Location Effect and The Stability of Regional Structur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7, No. 3, 1977, pp 441 - 442

14) Berzeg K, "The Empirical Content of Shift-Share Analysi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8, No.3, 1978, pp. 463-364

역의 장래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하는 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으로 지역성장의 원인을¹⁶⁾

① 국가전체의 성장이 그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부문과

② 그 지역이 특정산업에 전문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성장효과

③ 그리고 그 지역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그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 성장효과가 지역산업구조의 특성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지역의 성장과 산업구조와의 관계가 종종분석 되어지는데, 그 분석기법들중 하나가 변화-할당 분석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⁷⁾

따라서 변화-할당분석은 두가지의 경제성장 분석방법의 통합으로 나타난다. 고용과 부가가치 소득을 지역 경제성장의 대리변수로 보면,¹⁸⁾

① 할당분석은 연구대상지역이 기준경제의 고용과 부가가치 소득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분석이며,

② 변화분석은 위의 할당분석이 정적분석임에 반해 특정기간동안의 연구대상지역의 경제활동지표 즉, 고용과 부가가치소득의 변화를 기준지역의 해당지표와 비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동적으로 분석한다.

2) 변화-할당분석 모형의 구조

변화-할당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초로 한다. 즉, 전국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산업의 구성비가 큰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빨리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이 전통적 변화-할당분석에 있어서는 지역성장을 기준경제

15) Hannu Tervo and Paavo Okko, "A Note on Shift-Share Analysis as a Method of Estimating The Employment Effects of Regional Economic Polic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3, No.1., 1983, pp. 115-116.

16) 김기옥, 「중소도시개발론」, 대왕사, 1986, pp. 117-129

17) Henry W. Herzog, Jr. and Richard J. Olsen, op. cit., pp. 441-442

18) Bruce Yandale, "Identifying Brand Performance by Shift-Share Analysi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Winter, 1978, vol.6, NO.1, pp. 127-137

(Benchmark Economy)의 그것과 비교하여 나타난 성장격차를 편의에 따라 전국 경제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 그리고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등으로 3대별한다. 이때 지역할당효과는 지역경제의 수행능력에 따라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수행효과(Regional Performance Effect)라고도 한다. 그리고, 전국경제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의 합을 한 지역의 전체성장효과 (Total Change Effect)라고 하며,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의 합을 순변화효과(Net Change Effect)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론적 특성과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¹⁹⁾

① 전국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

전국 성장효과는 일정기간동안 j지역 i산업부문의 총 고용 또는 총 부가가치 증가량 중에서 국가전체의 산업성장으로 유발된 소득 또는 고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j지역 i산업이 전국의 총고용 또는 총부가가치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나타나는 i산업성장의 전국성장효과이다. 이것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과 무관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 지역고용 또는 부가가치성장이 국가전체의 성장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데 분석모형은 식 (II-1,2)와 같다.



$$Ng = U_{ij} \times G_n \dots\dots\dots (II-1)$$

Ng : 전국성장효과

U_{ij} : j 지역 i산업의 고용

$G_n = \frac{U(t) - U(o)}{U(o)}$: 전국의 총 고용의 성장율

$$Ng = U_{ij}(o) \times \frac{U(t) - U(o)}{U(o)} \dots\dots\dots (II-2)$$


19) Perloff, H.S., E.S. Dunn, E.E. Lampard and R.F. Muth, Regions, Resource and Economic Growth,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0, pp.109-129(김태보, 제주도 관광소득의 경제효과분석, 제주도, pp.12-14에서 재인용)

$U_{ij}(o)$: 기준년도 j지역 i산업의 고용
 $U(o)$: 기준년도 전국 산업의 총 고용량
 $U(t)$: 비교년도 전국 산업의 총 고용량

② 산업복합효과(Industrial Mix Effect)

산업복합효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i산업부문의 성장율에서 전체산업의 평균성장율을 뺀 i산업의 순성장이 j지역 i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부가가치 또는 고용량 증가를 뜻한다. 다시말하면, 이것은 j지역이 전국의 고성장 혹은 저성장산업에 전문화했기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부가가치 또는 고용의 증가이다. 또한 이 효과는 j지역의 산업구조 즉, 산업복합상태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국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의 전문화도가 평균이상일때는 정(+)의 값을 가지고 (이 값이 클수록 산업구조는 양호하다.) 그렇지 못할 때는 부(-)의 값을 가지는데 이 효과의 분석모형은 식 (II-3,4)와 같다.

$$IM = U_{ij} \times (G_{in} - G_n) \dots\dots\dots (II-3)$$


 IM : 산업복합효과
 $G_{in} = \frac{U_i(t) - U_i(o)}{U_i(o)}$: 전국 i 산업의 고용성장률

$$IM = U_{ij}(o) \times \left(\frac{U_i(t) - U_i(o)}{U_i(o)} - \frac{U(t) - U(o)}{U(o)} \right) \dots\dots\dots (II-4)$$

$U_i(o)$: 기준년도 전국 i 산업의 고용
 $U_i(t)$: 비교년도 전국 i 산업의 고용

③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

지역경제의 수행능력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수행효과 (Regional

Performance Effect) 라고도 불리우는 지역할당효과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 대한 j 지역의 경쟁적 위치를 설명한다. 이것은 j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 예컨대, 시장의 입지, 운송의 편리, 인구유입, 기타 산업입지요소등 j지역의 다른 지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의미한다. 즉, 전국에 비해 j지역이 보다 빠른 부가가치 또는 고용의 성장을 보이는 산업을 가질 경우에는 이것이 지역의 총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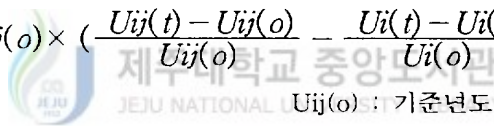
다시말하면 지역의 산업구조가 지시하는 비율보다 빠른 성장을 보일 때는 지역은 정(+)의 값을 가지는데 한편으로 이것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다. 지역할당효과가 지역경제의 전 산업차원에서 정(+)이나 부(-)로 결정지어지는 것은 타지역보다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는 산업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할당효과는 지역간 경쟁력을 통한 지역 성장에의 기여도를 보여주는데 분석모형은 식(II-5,6)과 같다.

$$RS = U_{ij} \times (G_{ij} - G_{in}) \dots\dots\dots (II-5)$$

RS : 지역의 할당효과

$$G_{ij} = \frac{U_{ij}(t) - U_{ij}(o)}{U_{ij}(o)} : j\text{지역 } i\text{산업의 고용성장률}$$

$$RS = U_{ij}(o) \times \left(\frac{U_{ij}(t) - U_{ij}(o)}{U_{ij}(o)} - \frac{U_i(t) - U_i(o)}{U_i(o)} \right) \dots\dots\dots (II-6)$$



U_{ij}(o) : 기준년도 j지역 i산업의 고용

U_{ij}(t) : 비교년도 j지역 i산업의 고용

④ 한 지역의 전체 성장효과 (Total Change Effect)

이상의 세가지 요인에 의한 지역성장의 합은 지역 총성장으로써 지역의 산업별 성장분 즉, 총성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한 지역의 전체성장효과는 j지역 i산업의 총고용증가 또는 총 부가가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효과의 값이 정(+)이라는 의미는 j지역 i산업 고용 또는 부가가치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i 산업은 성장 산업임을 나타낸다. 반대로 이 효과의 값이 부(-)일 경우에는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i 산업은 쇠퇴산업임을 나타낸다. 이와같이 전체성장효과는 상술한 세가지 효

과의 합으로 나타내며, 그 분석모형은 식 (II-7)과 같다.

$$\begin{aligned}
 TC &= Ng+IM+RS \\
 &= [U_{ij}(o) \times \frac{U(t)-U(o)}{U(o)}] + [U_{ij}(o) \times (\frac{U_i(t)-U_i(o)}{U_i(o)} - \frac{U(t)-U(o)}{U(o)})] \\
 &\quad + [U_{ij}(o) \times (\frac{U_{ij}(t)-U_{ij}(o)}{U_{ij}(o)} - \frac{U_i(t)-U_i(o)}{U_i(o)})] \\
 &= U_{ij}(o) \times \frac{U(t)-U(o)}{U(o)} + U_{ij}(o) \times \frac{U_i(t)-U_i(o)}{U_i(o)} - U_{ij}(o) \times \frac{U(t)-U(o)}{U(o)} \\
 &\quad + U_{ij}(o) \times \frac{U_{ij}(t)-U_{ij}(o)}{U_{ij}(o)} - U_{ij}(o) \times \frac{U_i(t)-U_i(o)}{U_i(o)} \\
 &= U_{ij}(o) \times \frac{U_{ij}(t)-U_{ij}(o)}{U_{ij}(o)} \\
 &= U_{ij}(t) - U_{ij}(o) \dots\dots\dots (II-7)
 \end{aligned}$$

⑤ 지역의 순변화 효과(Net Change Effect)

지역의 순변화 효과는 j지역의 지역총변화 효과중에서 국가의 성장으로 인한 고용 또는 부가가치 증가를 감한 것으로써, 순수하게 j지역 자체의 성장력에 의한 고용 또는 부가가치 증가를 의미한다. 이 효과의 값이 정(+)인 경우는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j지역 i산업이 성장산업임을 나타내고, 반대로 부(-)인 경우는 쇠퇴산업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순 변화효과는 j지역 i산업이 성장산업인지 쇠퇴산업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그 분석모형은 (II-8)과 같다.

$$\begin{aligned}
 NC &= TC-Ng = IM + RS \\
 &= U_{ij}(Gin - Gn) + U_{ij}(Gij - Gin) \\
 &= U_{ij}(Gij - Gn)
 \end{aligned}$$

$$= U_{ij}(o) \times \left[\frac{U_{ij}(t) - U_{ij}(o)}{U_{ij}(o)} - \frac{U(t) - U(o)}{U(o)} \right] \dots\dots\dots (II-8)$$

3) 변화-할당분석기법의 특징

이상에서 논의한 지역경제성장 변화-할당 분석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지역성장분석 모형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첫째, 지역성장분석의 횡적, 종적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관찰할 수 있는 간결하고 이해가 쉬운 분석모형이다.

둘째, 분석상의 비용이 저렴하다.

셋째, 단순히 10개년정도의 관찰과 20-30개의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회귀 직선 방법은 충분한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가질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분석기법은 10년간의 자료중 2개 시점의 자료만 확보된다면 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10년간의 동태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넷째, 자료가 불충분하여 시계열분석이 어려운 경우와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러나 변화-할당분석은 상기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분석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의 총 성장에 각 산업의 구성요소가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즉 산업의 분류를 세분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조적 차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산업들 상호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 산업의 고용자수의 증가가 절대치로서보다는 그 구성비가 가중된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고용성장의 절대치 밖에 보여주지 못한다.

셋째,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기때문에 실업자의 증감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넷째, 지역간 성장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지역산업의 성장차이가 지역정책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지역자체의 내부요인에 의한것 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

4) 변화-할당 모형의 보완: Henderson의 지역성장률 시차분석에 의한 보완
 상술한 바와같이 변화-할당분석의 성장효과는 j지역 i산업의 고용 또는 부가가치의 성장변화를 성장요인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는데 있다. 그러나 이 분석기법은 산업별 성장요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산업별 성장기여도를 성장률로 표시하는 모형이 Henderson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지역성장률 시차 분석이다.²⁰⁾ 이 분석기법은 지역경제 성장과정에서 j지역 i산업의 고용 또는 부가가치 증가가 지역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나타내준다. 지역성장률 시차분석은 j지역 i산업의 실질변화 성장률과 전국의 그것과의 차이로서 계산되는데, 이러한 분석모형은 Henderson 모형외에 Esterban-Marquillas 모형, Stilwell 모형, Brown 모형, Hellman 모형, Greenberg 모형, Beaud 모형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Henderson 모형을 주로 활용토록 하는데, 이것은 모두 증가율로써 표시된다. 이러한 지역성장률 총시차(TR)는 경쟁력 요인(RP:Rate Part)과 가중요인(WP:Weight Part)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이 두 요인의 합을 총요인(Total Part)이라고 부른다. 이와같은 지역성장률 시차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에 이용된다.

① 기준년도(o) j지역의 산업별 고용구성비

$$C_{ij}(o) = \frac{U_{ij}(o)}{U_j(o)} \dots\dots\dots (II-9)$$

U_{ij}(o): 기준년도 j지역 i산업의 고용

U_j(o) : 기준년도 j지역의 총고용

② 기준년도(o) 전국산업별 고용구성비

20) 최재선, 「전계서」, 1990, pp.371-375

$$Ci(o) = \frac{Ui(o)}{U(o)} \dots\dots\dots (II-10)$$

Ui(o) : 기준년도 전국 i산업의 고용
 U(o) : 기준년도 전국의 총고용

③ j지역 i산업의 성장율 (0년부터 t년까지)

$$PGij(o, t) = [\frac{Uij(t) - Uij(o)}{Uij(o)}] = [\frac{Uij(t)}{Uij(o)} - 1] \dots\dots\dots (II-11)$$

Uij(t) : 비교년도 j지역 i산업의 고용
 Uij(o) : 기준년도 j지역 i산업의 고용

④ 전국 i산업의 성장율(0년부터 t년까지)

$$NGi(o, t) = [\frac{Ui(t) - Ui(o)}{Ui(o)}] = [\frac{Ui(t)}{Ui(o)} - 1] \dots\dots\dots (II-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Ui(t) : 비교년도 전국 i산업의 고용
 Ui(o) : 기준년도 전국 i산업의 고용

⑤ j지역 i산업의 실질 총 성장율(기준년도(o)의 i산업구성비로 곱한 가중치임)

$$\begin{aligned} RRij(o, t) &= [Cij(o) \times PGij(o, t)] = \frac{Uij(o)}{Uj(o)} \times [\frac{Uij(t) - Uij(o)}{Uij(o)}] \\ &= \frac{Uij(o)}{Uj(o)} \times [\frac{Uij(t)}{Uij(o)} - 1] \dots\dots\dots (II-13) \end{aligned}$$

⑥ 전국 i산업의 실질 총 성장율(전국 i산업의 실질 총성장율을 전국의 기준년도

(o)의 i산업 구성비에 의해 가중된 것임)

$$\begin{aligned}
 NRin(o, t) &= [Ci(o) \times NGi(o, t)] = \frac{Ui(o)}{U(o)} \times [\frac{(Ui(t) - Ui(o))}{Ui(o)}] \\
 &= \frac{Ui(o)}{U(o)} \times [\frac{Ui(t)}{Ui(o)} - 1] \dots\dots\dots (II-14)
 \end{aligned}$$

따라서 j지역 i산업의 지역성장 총시차(TRij(o,t))는 j지역 i산업의 실질총성장률(RRij(o,t))로부터 전국의 그것(NRin(o,t))을 감한 것이다. 이때 지역의 총 성장률은 기준년도의 j지역의 i산업 구성비로 가중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총 성장률도 역시 전국의 기준년도 i산업 구성비로 가중되었다. 이 차는 가중요인과 경쟁력 요인등의 2개 요인으로 아래와 같이 분리된다.

$$\begin{aligned}
 TRij(o, t) &= RRij(o, t) - NRin(o, t) \\
 &= \frac{Uij(o)}{Uj(o)} \times [\frac{Uij(t) - Uij(o)}{Uij(o)}] - \frac{Ui(o)}{U(o)} \times [\frac{Ui(t) - Ui(o)}{Ui(o)}] \\
 &= \frac{Uij(o)}{Uj(o)} \times \frac{Uij(t) - Uij(o)}{Uij(o)} - \frac{Uij(o)}{Uj(o)} \times \frac{Ui(t) - Ui(o)}{Ui(o)} \\
 &\quad + \frac{Uij(o)}{Uj(o)} \times \frac{Ui(t) - Ui(o)}{Ui(o)} - \frac{Ui(o)}{U(o)} \times \frac{Ui(t) - Ui(o)}{Ui(o)} \\
 &= \frac{Uij(o)}{Uj(o)} \times [\frac{Uij(t) - Uij(o)}{Uij(o)} - \frac{Ui(t) - Ui(o)}{Ui(o)}] \\
 &\quad + [\frac{Uij(o)}{Uj(o)} - \frac{Ui(o)}{U(o)}] \times \frac{Ui(t) - Ui(o)}{Ui(o)} \dots\dots\dots (II-15)
 \end{aligned}$$

첫번째 표현과 두번째 표현은 지역성장률과 전국 성장률간의 차로 나타낸다. 이것은 다시 마지막 두 표현으로 2분 되는데, 그 중 첫번째 표현은 지역성장시차의 가중요인이며 두번째 표현은 경쟁력 요인이다.

여기에서 가중요인은 변화-할당 분석에서의 산업구조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WP = [\frac{Uij(o)}{Uj(o)} - \frac{Ui(o)}{U(o)}] \times [\frac{Ui(t)}{Ui(o)} - 1] \dots\dots\dots (II-16)$$

또한 경쟁력 요인은 변화-할당 분석에서의 지역할당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RP = \frac{U_{ij}(o)}{U_j(o)} \times ([\frac{U_{ij}(t) - U_{ij}(o)}{U_{ij}(o)}] - [\frac{U_i(t) - U_i(o)}{U_i(o)}] \dots) \dots \dots \dots (II-17)$$

2. 제주지역 경제의 변화-할당분석

1). 제주지역경제의 개관

(1) 개관

① 위치 및 지리적 개관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단인 남부해상에 위치한 국내최대의 도서로써 북쪽의 목포와는 약 91리, 여수와는 약 108리, 북동쪽의 부산과는 약 169리가 떨어져 있으며, 서남쪽은 동지나해에 접하여 있다. 경위도상으로는 동경 126° 10' 으로부터 127° 에 이르고 북한 33° 10' 으로부터 33° 34' 에 달하며 추자군도 및 마라도를 포함하면 33° 05' 으로부터 33° 40'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속도서를 포함한 총 면적은 1,825 Km² 로써 남한 면적의 약 1.8%를 점하고 있다.



②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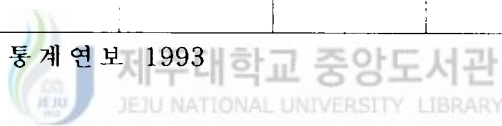
제주도의 인구 <표1>는 1992년 말 현재 506,222명으로써 전국인구 43,666,000의 약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5년에서 1992년간 년평균 약 0.94%를 기록하여 전국평균 0.97%보다 조금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2년도 인구밀도는 전국 평균 439.8명/ Km² 보다 낮은 272명/ Km² 로 나타나고 있다.

<표1>인구추이

(단위:명,%)

년도 구분	인 구 수			인구증가율	인구밀도(Km ²)
	합계	남자	여자		
1961	281,518	128,905	152,613	-0.05	157
1965	326,405	153,724	172,681	2.52	182
1970	365,522	175,193	190,329	-1.23	200.9
1973	390,450	187,820	203,630	2.50	214.5
1976	420,830	203,612	217,728	2.20	231.2
1979	456,988	221,842	235,146	2.99	250.4
1982	423,967	230,767	243,200	1.30	260
1984	482,031	235,703	246,328	0.87	264
1986	495,568	242,369	253,599	1.51	272
1988	508,992	249,170	259,822	1.28	279
1990	514,605	254,322	260,283	-0.45	282
1992	506,222	249,583	256,639	-0.02	272

자료:제주도, 통계연보 1993



③ 경제활동 인구 및 산업별 취업구조

제주도의 경제활동 인구는 <표2>에서 보면 1961년 144,650명이던 것이 1992년 255,000명으로 약 72.8% 증가 했는데 이를 산업별 구성비로 보면 1961년의 경우 1차산업인 농업수산업이 85.7%, 2차산업인 광공업이 0.8%, 3차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12.7%이던것이 1992년 말 현재 농업수산업이 33.9%, 광공업이 4.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62.1%로 나타나 농업수산업 비중이 낮아지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표 2> 경제활동 인구 및 산업별 취업구조 추이

(단위:명,%)

년도 구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61	144,650	140,246	121,273 (85.7)	1,109 (0.8)	17,864 (12.7)
1965	165,163	162,345	138,321 (85.2)	1,846 (1.1)	22,178 (13.7)
1970	159,492	153,890	123,868 (80.5)	4,527 (2.9)	25,495 (16.6)
1973	172,222	171,397	139,932 (81.6)	5,960 (3.5)	25,505 (14.9)
1976	181,028	180,186	143,415 (79.6)	5,816 (3.2)	33,095 (17.2)
1979	180,510	180,128	139,860 (77.6)	5,580 (3.1)	34,688 (18.3)
1982	178,880	175,054	88,216 (50.4)	7,395 (4.2)	79,443 (45.4)
1984	189,442	185,133	112,303 (60.7)	5,683 (3.0)	67,147 (36.3)
1986	202,480	199,143	116,002 (58.2)	6,139 (3.1)	77,002 (38.7)
1988	211,298	208,178	112,457 (54.0)	6,787 (3.3)	88,934 (42.7)
1990	237,000	236,000	99,000 (42.0)	9,000 (3.8)	128,000 (54.2)
1992	250,000	248,000	84,000 (33.9)	10,000 (4.0)	154,000 (62.1)

자료: 제주도, 제주경제지표, 1993,
제주도, 통계연보, 1993

④ 지역총생산(GRP) 추이

지역총생산(GRP)은 1961년의 25억 7천만원이던 것이 1992년 23,337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산업별 구성비로 보면 농림수산업이 55.7%, 광공업이 1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33.5%이던 것이 1992년말 현재 농림수산업이 30.7%, 광공업이 4.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65.1%로 나타나 농림수산업과 광공업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격

히 증가하였다.

<표 3> 연도별 지역주민 총생산(GRP) (단위:억원,%)

년도	산업별		사회간접자본		지역주민 총생산
	농림수산업	광공업	및	기타서비	
1961	55.7	10.8		33.5	25.7
1965	68.3	6.9		24.8	100.1
1970	47.5	8.5		44.0	240.0
1973	51.8	7.7		40.5	517.0
1976	50.1	2.6		47.3	1,197.6
1979	38.7	4.6		56.7	2,739.7
1982	38.7	3.7		57.6	5,565.3
1984	38.6	3.0		58.4	7,036.1
1986	42.4	4.0		53.6	9,537.4
1988	35.1	3.3		61.6	12,067.4
1990	35.0	3.0		62.0	17,184.0
1992	30.7	4.2		65.1	23,337.0

자료: 제주도, 제주경제지표 1993

내무부, 주민소득연보, 각년도

(2) 관광산업의 현황

본 도의 관광산업은 1960년대에는 보잘것 없는 형편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제주도 종합개발에 의해 성장이 촉진되었고 이와같은 종합개발 이외에도 제주도의 풍부한 자연경관, 무공해, 특이한 민속, 아열대성 기후등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경쟁적 요소의 우위로 성장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의 규모는 1992년의 경우 3,421,708명의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의 경우 약 92.91%인 3,179,132명이고, 외국인인 경우는 약 7%인 242,57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이 쓰고 있는 경비도 747,024백만원으로 내국인인 경우 약 78%인 621,666백만원, 그리고 외국인은 약 22%인 175,358백만원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객의 양적성장추세를 살펴보면 관광객 규모는 1970년대 일련의 사회현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시설 및 업체의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의 숙박업체수는 1976년 221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수차례에 걸친 관광개발계획의 추진에 힘입어 1992년에는 661개로 늘어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를 시설 종류별로 보면 호텔이 1966년의 178실에서 1992년에는 8,052실로 증가함으로써 제주지역 전체 객실수의 가장높은 비중(46.6%)을 차지하고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 한국전통호텔, 국민호텔, 가족호텔등도 417실에 이르고 있다. 여관 및 여인숙의 객실수는 각각 1966년의 439실, 195실에서 1992년에는 12배 수준인 5,816실, 2,254실에 이르고 있다.

관광객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제주지역의 여행업체수는 1986년의 16개 업체에서 1992년에는 124개업체에 이르고 있다. 또한 렌트카 업체는 10개업체, 이용시설업은 9개업체, 그리고 관광객이 쇼핑할 수 있는 업체수도 국제 12개소, 국내 25개소에 이르고 있다.

<표 4> 관광객 및 관광수입현황

구분 년도	관 광 객(명)			성장율 %	관 광 수 입(백만원)			성장율 %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화	외화	
1961	11,000	10,800	200	66.92	23	-	-	64.29
1965	75,981	74,407	1,574	36.36	156	-	-	160
1970	244,847	238,354	6,493	31.72	760	-	-	32.87
1973	360,636	340,416	20,220	21.05	3,197	-	-	45.20
1976	369,000	349,000	20,000	2.78	6,753	5,234	1,519	12.70
1979	744,447	712,947	31,500	12.37	24,458	20,048	4,410	34.07
1982	860,334	815,831	44,503	18.78	62,301	48,905	13,351	45.48
1984	1,217,243	1,168,425	48,818	18.73	101,213	84,127	17,086	19.99
1986	1,492,308	1,376,555	115,753	12.8	143,755	103,242	40,513	24.23
1988	2,000,495	1,842,691	157,804	13.77	238,178	175,056	63,122	37.05
1990	2,992,096	2,757,023	235,073	13.20	431,943	330,837	101,106	25.50
1992	3,421,708	3,179,132	242,576	3.21	797,024	621,666	175,358	55.32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1993

(3) 농·어업의 현황

제주도는 비교적 비옥한 평탄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어업을 겸한 밭농사가 발달되어왔다. 제주도의 농가는 40,055호로써 농가인구는 1992년 현재 152,093명에 달하고, 전체적인 경지면적은 54,197ha에 달하나 기후적인 요건, 즉,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고온다습, 다우 및 바람이 많고 토질상으로 화산재 토양과 암반, 돌이 많아 경운, 제초 및 기계화가 어려워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본도의 농업은 60년대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적으로 식량작물위주의 농업이었으나 60년대이후 감귤 및 특용작물, 기타 채소재배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1년 1068ha에 달하던 논경지면적은 점차적인 감소로 인하여 1992년 현재는 474ha로 44.38%의 감소를 보인 반면, 밭경지면적은 제주도의 주농업수입원인 감귤을 비롯한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등 경제작물 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1961년 42,548ha에서 1992년에는 53,723ha로써 12.6%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의 입지조건을 감안한 시설재배기술이 보급되면서 밭경지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표 5>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단위:명,ha)

년도 구분	농가(초)	농가인구	논경지면적	밭경지면적
1961	50,747	234,789	1068	42,548
1965	58,427	261,064	1050	47,172
1970	55,558	248,000	796	35,014
1973	57,909	265,710	1059	47,636
1976	54,650	249,768	1062	48,856
1979	53,162	233,526	1003	49,107
1982	46,260	202,680	1164	48,760
1984	44,770	192,750	1071	48,482
1986	42,217	180,444	1004	53,361
1988	42,077	170,940	983	53,774
1990	40,147	164,123	886	53,928
1992	40,055	152,093	474	53,723

자료:제주도,제주경제지표, 1993

<표 6>가축현황

(단위:호,마리)

년도 구분	한우		젖소		돼지	
	사육호수	마리	사육호수	마리	사육호수	마리
1961	23790	49425	-	3	46188	50358
1965	35065	76585	-	23	52531	65812
1970	-	42365	-	46	-	54700
1973	20044	50043	11	62	39809	59657
1976	20804	60544	14	252	44192	67350
1979	19585	68369	69	1118	39554	64704
1982	10714	28509	67	926	26878	54398
1984	12372	42007	110	1456	14919	63342
1986	13925	52195	140	1632	9508	80046
1988	10053	33254	132	2628	3849	109113
1990	6035	38030	141	3288	979	109192
1992	7263	46425	121	3490	757	137815

년도 구분	말		닭	
	사육호수	마리	사육호수	마리
1961	4727	13812	29138	99096
1965	6846	19633	33548	120546
1970	-	-	-	167821
1973	3530	6397	8459	172619
1976	3206	5309	4551	191086
1979	2037	3009	2108	431668
1982	932	1765	1295	450350
1984	597	1598	1247	504610
1986	413	1347	1397	547824
1988	332	1835	623	660331
1990	295	2439	267	804015
1992	204	3121	282	771476

자료: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한편, 축산에 있어서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목야지가 형성되어있어 말등 가축을 양육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1992년 현재 제주도의 가축현황은 <표 6>과 같이 일반적으로 축산산업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우인 경우 1961년의 49,425마리에서 1992년 46,425마리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말의 경우도 1961년 13,812마리에서 1992년 3,121마리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도의 수산업<표 7>은 대부분 어로업으로써 농업을 겸하고 있는데 1992년말 어선수는 총2121척이 되나 5톤 이하의 어선이 대부분으로 영세어업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획고도 41,168M/T에 불과한 형편이다.

<표 7>어선 세력수

(단위:隻,톤)

년도 구분	총척수	중력선	무동력선	총톤수	어획고
1961	970	229	741	2291	16772
1965	1087	275	812	...	14204
1970	1265	514	751	6034	26459
1973	946	450	496	1625	38363
1976	921	658	263	1964	47061
1979	1330	1108	222	7224	39103
1982	1541	1259	282	8077	29713
1984	1652	1425	227	8441	44778
1986	1872	1638	234	10943	33955
1988	2018	1784	234	13931	40656
1989	1984	1824	160	13010	38699
1990	2055	1894	161	14000	36688
1992	2121	2017	107	14863	41168

자료: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4) 제조업의 현황

제주도의 제조업은 입지조건상 타 지역에 비해 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본도의 자원분포를 보면 광산자원이 전무하고 수자원, 동력자원은 빈약한 상태이며 자본 및 기술의 낙후, 원료 및 생산제품 수송비용의 과다부담등 불리한 공업여건으로 인하여 본도 제조업의 경우 발전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채 낙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내 제조업체수는 <표 8>에서와 같이 1992년 말 현재 267개 업체이고, 종업원수는 5,195명으로 제주노동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제조업체중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전무하고, 오직 1개의 업체만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빈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5-9인을 고용하는 업체는 제조업 전체의 74.9%인 122개 업체로서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업종은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분야로 전 제조업의 42.1%인 2,177명에 달하며, 이는 본도 주산물인 감귤, 고구마, 축산물, 해산물등을 주원료로하여 원료구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유일한 산업이다.

이와같이 입지조건의 제약으로 극소수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지역내 소비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산업으로써 영세규모 및 정체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 통신, 용수등 하부구조의 미비로 인한 원인도 한 몫을 하는 실정이다.



<표 8> 주요 제조업체수

구분 \ 년도	1961	1965	1970	1973	1976	1979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음식료품및담배	59		122	100	108	119	100	105	91	80	78	84
섬유의복및가죽산업	8		5	32	23	5	16	16	8	10	9	5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포함)				18	10	10	10	10	10	9	11	6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인쇄출판업				20	15	4	14	15	15	15	21	27
화학물,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16			17	7	2	11	9	18	10	19	16
비금속광물	9		20	8	6	-	26	50	46	46	60	73
제1차금속				-		-	-	-		1		1
조립금속제품,기계및장비	18		33	21	14	9	17	18	18	16	24	25
기타제조업	25		86	5	3	4	2	-	1	2	4	16
계	135		266	229	194	159	196	223	204	189	233	267

자료:제주도, 제주경제지표, 1993

2). 제주지역 경제의 변화-할당 분석

제주지역의 경제구조를 변화-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 차등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측정단위는 고용자수와 부가가치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산업분류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원칙으로 하였고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를 측정단위로 한 분석방법에는 중분류로, 고용량은 세분류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변화-할당 분석에 의한 경제성장분석

변화-할당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경제에 대해 지역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1975-1985, 1985-1992년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여 지난 16년간의 제주지역 경제의 성장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지수로써 고용자수와 부가가치를 단위로 경제활동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① 고용자수 변화-할당분석 (1975-1985)

<표 9> 변화-할당분석(1975-1985) - 고용자수

(단위:명,%)

산업분류	구분	NG	IM	RS	TC	NC
농업		156.0 (42.05)	83.8 (22.59)	131.2 (35.36)	371.0 (11.53)	215.0 (0.88)
어업		156.0 (4.16)	2313.9 (61.77)	1276.1 (34.07)	3746.0 (11.64)	3590.0 (14.69)
광업		0.8 (3.88)	1.1 (5.34)	18.7 (90.78)	20.6 (0.06)	19.8 (0.08)
식료품제조업		525.1 (57.68)	1333.7 (146.51)	-948.5 (-104.20)	910.3 (2.83)	385.2 (1.56)
음료제조업		223.4 (79.00)	302.1 (106.82)	-242.7 (-85.82)	282.8 (0.88)	59.4 (0.24)
의복제조업		50.7 (65.50)	156.5 (202.20)	-129.8 (-167.70)	77.4 (0.24)	26.7 (0.11)
나무및코르크제품제조업		7.9 (17.25)	9.5 (20.74)	28.4 (62.01)	45.8 (0.14)	37.9 (0.16)
종이및제품제조업		7.9 (17.25)	19.3 (42.14)	18.6 (40.61)	45.8 (0.14)	37.9 (0.16)
인쇄출판및관련사업		308.9 (60.83)	951.0 (187.28)	-752.1 (-148.11)	507.8 (1.58)	198.9 (0.81)
산업용화학물제조업		113.3 (78.90)	308.4 (214.76)	-278.1 (-193.66)	143.6 (0.45)	30.3 (0.12)
기타석유및석탄제조업		0.8 (1.13)	1.2 (1.70)	68.6 (97.17)	70.6 (0.22)	69.8 (0.29)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8 (0.24)	2.6 (0.77)	332.2 (98.99)	335.6 (1.04)	334.8 (1.37)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8 (1.49)	3.9 (7.28)	48.9 (91.23)	53.6 (0.17)	52.8 (0.22)
기계제조업		0.8 (2.90)	8.8 (31.88)	18.0 (65.22)	27.6 (0.40)	26.8 (0.11)
운수장비제조업		0.8 (1.44)	0.6 (1.08)	54.2 (97.48)	55.6 (0.17)	54.8 (0.22)
전기.가스.수도업		218.6 (20.07)	729.9 (67.01)	140.7 (12.92)	1089.2 (3.38)	870.6 (3.56)
건설업		1062.2 (32.79)	4053.1 (125.12)	-1875.9 (-57.91)	3239.4 (10.01)	2177.2 (8.91)
도매업		15.0 (3.25)	118.1 (25.56)	329.0 (71.20)	462.1 (1.44)	447.1 (1.83)
소매업		12.7 (1.72)	292.0 (39.49)	434.7 (58.79)	739.4 (2.30)	726.7 (2.97)
음식및숙박업(관광업)		396.3 (7.84)	3872.6 (76.58)	788.2 (14.73)	5057.1 (1.57)	4660.8 (19.1)
운수창고및통신업		2784.9 (36.48)	7999.6 (104.78)	-3149.8 (-41.26)	7634.7 (23.72)	4849.8 (19.84)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		888.7 (24.30)	3779.0 (103.32)	-1010.3 (-27.62)	3657.4 (11.36)	2768.7 (11.33)
사회및개인서비스		807.1 (22.37)	3425.9 (94.95)	-624.8 (-17.32)	3608.2 (11.21)	2801.1 (11.46)
계		7739.5 (24.05)	29766.6 (92.50)	-5324.5 (-16.55)	32181.6 (100.00)	24442.1 (75.95)

이 기간동안(1975-1985)의 경제성장을 고용자수를 측정단위로 분석 <표-9>한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중 농업, 어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그리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상대적인 침체로 전국 평균 고용성장에 비해 상대적인 성장둔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을 각 경제활동별로 비례변동성장효과인 산업복합효과(IM), 차등변동성장효과인 지역할당효과(RS), 순 상대적 성장효과(NC)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농업인 경우 IM(22.59%)인 83.8, RS(35.36%) 131.2, NC (0.88%), 215.0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기간중에는 산업복합효과와 지역의 경쟁적 요인에 의한 지역할당효과로 인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지역 자체의 성장력에 의한 순 상대적 성장효과의 면에서도 전국성장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성장산업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기간동안 농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바나나, 파인애플등의 시설재배업이 확대됨으로 해서 성장산업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도 IM (61.77%) 2313.9, RS (34.07%) 12761.1, NC (14.69%) 3590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해안선의 길이가 253 Km에 달하며 광활한 대륙붕과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수산업의 입지조건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성장산업으로 나타난 것으로 고려된다. 도매업 IM(25.56%) 118.1, RS(71.20%) 329.0, NC (1.83%) 447.1, 소매업 IM(39.49%) 292.0, RS (58.79%) 434.7, NC (2.97%) 726.7, 음식 및 숙박업 IM (76.58%) 3872.6, RS (14.73%) 788.2, NC (19.1%) 4660.8로 성장산업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3차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고른 성장효과는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관광자원과 관광기반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기때문에 성장산업으로 나타난 것으로 고려된다. 그런 반면, 대체적으로 전기.가스 수도업(IM729.9, RS 140.7, NC 870.6)등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제조업, 운수장비제조업등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하여 성장의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제주지역의 제조업부문인 경우 자본 및 기술의 낙후, 도내 판매시장의 협소, 용수.동력자원의 미흡,

원료 및 생산제품의 수송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등의 불리한 공업입지 조건으로 제조업 전반적인 성장이 침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데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② 고용자수 변화-할당분석 (1985-1992)

한편, 1985 - 1992년간의 8년간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고용자수 측정단위로 분석 <표 10>한 결과는 전 산업에서 성장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각 산업부문별로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동 기간중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유리한 입지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분석기간에 순 창출된 이 지역의 실질고용성장은 국가적 기여에 의한 평균성장효과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경제는 ① 9591.1명의 국가적 요인(NG)에 의한 성장을 보인 반면 ② 제주지역의 입지적 변화(NC)로 인한 11,854명이라는 정(+)의 순 상대적 성장효과 때문에 결국 2262.9명의 실질 고용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건설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음식 및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등이 성장산업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기타 석유 및 석탄제조업, 종이 및 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등이 경미한 성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각 경제활동별로 산업복합효과(IM), 지역할당효과(RS), 순변화(NC)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 IM1047.5, RS 2443.5, NC 3491로 제주지역의 건설경기호황으로 전반적인 성장산업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IM 4503, RS -1100.9, NC3403으로 이 기간중 이 분야는 비례변동성장효과인 산업복합효과에 의해 성장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 IM -482.1, RS 2023.9, NC 1541.8,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IM -266, RS 1668.9, NC 1402.9, 도매업 IM 665.2, RS 310.1, NC 975.3, 소매업 IM -204.7, RS 264.4, NC 59.7, 음식숙박업 IM -1324.9, RS 2910.8, NC 1585.9 등으로 나타나 지역의 경쟁적 요소에 의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차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입지적인 상대적 경쟁성의 우위로 인하여 이 분야의 고른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고려된다.

<표 10> 변화-할당 분석 (1985-1992) - 고용자수

(단위:명,%)

산업분류	구분	Ng	Im	Rs	Tc	Nc
농업		101.4 (-143.02)	520.3 (-733.85)	-692.6 (976.87)	-70.9 (-0.33)	-172.3 (-1.45)
어업		1452.4 (1068.73)	-2428.9 (-1787.27)	1112.4 (818.54)	135.9 (0.63)	-1316.5 (-11.10)
광업		28 (56.11)	-18.3 (-36.67)	40.2 (80.56)	49.9 (0.23)	21.9 (0.18)
식료품제조업		209.2 (67.42)	-113.3 (-36.51)	214.4 (69.09)	310.3 (1.45)	101.1 (0.85)
음료제조업		47.2 (13.81)	-64.5 (-18.88)	359 (105.06)	341.7 (0.19)	294.5 (2.48)
의복제조업(신발제외)		16 (-266.67)	-24 (400)	2 (-33.33)	6 (-0.04)	-23.8 (-0.20)
나무및골크제품제조업		16 (51.45)	-31.9 (102.57)	47 (151.13)	31.1 (0.14)	15.1 (0.13)
종이및제품제조업		16 (64)	-0.8 (-3.2)	9.8 (39.2)	25 (0.12)	9 (0.08)
인쇄출판및관련사업		112 (44.57)	41.3 (16.43)	98 (38.99)	251.3 (1.17)	139.3 (1.18)
산업용화학물제조업		24 (95.24)	67.4 (267.46)	-66.2 (-262.7)	25.2 (0.12)	1.2 (0.01)
기타석유및석탄제조업		28 (6.05)	-3.6 (-0.78)	438.2 (94.73)	462.6 (1.17)	434.6 (3.7)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34 (16.89)	71.6 (9.03)	587.6 (74.08)	793.2 (0.12)	659.2 (5.56)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1.2 (-572.97)	-63.3 (1710.81)	38.4 (-1037.84)	-3.7 (-0.02)	-24.9 (-0.21)
기계제조업		10.8 (17.40)	66.5 (107.12)	-15.2 (-24.48)	62.08 (0.29)	51.3 (0.43)
운수장비제조업		-22 (25.91)	-65.9 (77.62)	3 (3.53)	-84.9 (-0.4)	-62.9 (-0.53)
전기.가스및수도사업		371.2 (-346.27)	-11.5 (10.73)	-466.9 (435.54)	-107.2 (-0.5)	-478.4 (-4.04)
건설업		982.4 (21.96)	1047.5 (23.42)	2443.5 (54.62)	4473.4 (20.81)	3491 (29.45)
도매업		180.4 (15.61)	665.2 (57.56)	310.1 (26.83)	1155.7 (5.38)	975.3 (8.23)
소매업		292 (83.03)	-204.7 (-58.2)	264.4 (75.18)	351.7 (1.64)	59.7 (0.50)
음식및숙박업(관광업)		944.4 (37.33)	-1324.9 (-53.07)	2910.8 (115.04)	2530.3 (11.77)	1585.9 (13.38)
운수창고및통신업		2232.4 (59.15)	-482.1 (-12.77)	2023.9 (53.62)	3774.2 (17.55)	1541.8 (13.00)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		1189.3 (25.90)	4503 (98.07)	-1100.9 (-23.98)	4591.5 (21.35)	3403 (28.71)
사회및개인서비스업		1205.2 (46.21)	-266 (-10.20)	1668.9 (63.97)	2608.1 (12.13)	1402.9 (11.83)
계		9591.1 (44.20)	1879.1 (8.66)	10229.8 (47.14)	21700 (100.0)	11854 (54.63)

그러나 농업은 IM 520.3, RS -692.6, NC -172.3으로 지금까지의 성장산업에서 침체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제주경제의 주류를 이뤄왔던 농업부문은 지역의 경쟁적 요소에 의한 차등변동 성장효과와 순상대적 성장효과는 부(-)의 효과를 보임으로써 전국에 비해 농업부문에서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입지적요소가 불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이 기간에는 미세하나마 성장산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IM 71.6, RS 587.6, NC 659.2, 기타 석유 및 석탄제조업 IM -3.6, RS 438.2, NC 434.6, 종이 및 제품제조업 IM -0.8, RS 9.8, NC 9, 음료제조업 IM -64.5, RS 359, NC 294.5, 식료품제조업 IM -113.3, RS 214.4, NC 101.1, 인쇄출판 및 관련사업 IM 41.3, RS 98, NC 139.3 등으로 경미하게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제조업 분야는 입지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의 분석 결과처럼 일부 제조업의 경우 시장수요면에서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비교적 지역실정에 맞는 단순한 공정과 소규모 생산단위를 요하는 지역의 농수산물 투입형의 식음료 제조업과 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봤을 때, 제주산 감귤등을 원료로 하는 식음료 제품가공과 민속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③ 부가가치 변화-할당분석(1975-1985)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 (1975-1985)의 부가가치를 측정단위로 분석 <표 11>한 결과를 살펴보면 10년전인 1975년도의 생산규모에 비하여 1조 4,242억 원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1985년도에 창출해낸 것으로 밝혀졌다. 변화-할당 모형에서는 바로 이것 (부가가치 증가분)을 이 기간중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총성장(TC)으로 본다. 이것은 비례변동성장효과인 산업복합효과(IM) 505.9, 차등변동성장인 지역할당효과(RS) 872.7로써 대부분 위 두요인에 의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이 같은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총성장은 대체로 보아 금융보험업, 농업, 어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창고

<표 11> 변화-할당분석(1975-1985) - 부가가치

(단위:억, %)

산업분류	구분	NG	IM	RS	TC	NC
농업		17.7	8.3	199.8	225.8	208.1
		(7.84)	(3.68)	(88.49)	(15.85)	(15.10)
임업		11.0	-25.6	12.2	-2.4	-13.4
		(458.33)	(1066.67)	(-508.33)	(-0.17)	(-0.97)
어업		0.6	-1.4	24.6	23.8	23.2
		(2.52)	(-5.88)	(103.36)	(1.67)	(1.68)
광업		0.1	-0.1	1.3	1.3	1.2
		(7.69)	(-7.69)	(100.00)	(0.09)	(0.09)
제조업		1.4	42.9	-13.4	30.9	29.5
		(4.53)	(138.83)	(-43.37)	(2.17)	(2.14)
전기가스.수도업		0.2	113.4	-102.3	11.3	11.1
		(1.77)	(1003.54)	(-905.31)	(0.79)	(0.81)
건설업		1.3	57.0	2.6	60.9	59.6
		(2.13)	(93.60)	(4.27)	(4.28)	(4.32)
도.소매업		3.2	60.4	13.7	77.3	74.1
		(4.14)	(78.14)	(17.72)	(5.43)	(5.38)
음식숙박업		3.2	-1.3	11.3	13.2	10.0
		(24.24)	(-9.85)	(85.61)	(0.93)	(0.73)
운수창고업		1.6	33.7	4.9	40.2	38.6
		(3.98)	(83.83)	(12.19)	(2.82)	(2.80)
통신업		0.3	8.3	11.3	19.9	19.6
		(1.51)	(41.71)	(56.78)	(1.40)	(1.42)
금융보험업		0.5	7.8	770.2	778.5	778.0
		(0.06)	(1.00)	(98.93)	(54.66)	(56.43)
부동산및사회서비스업		0.5	54.7	-4.1	51.1	50.6
		(0.98)	(107.05)	(-8.02)	(3.59)	(3.67)
사회및개인서비스업		2.2	94.5	-75.0	21.7	19.5
		(10.14)	(435.48)	(-345.62)	(1.52)	(1.41)
일반공공행정		0.6	9.9	20.9	31.4	30.8
		(1.91)	(31.53)	(66.56)	(2.20)	(2.23)
사회서비스업		1.2	43.4	-5.3	39.3	38.1
		(3.05)	(110.43)	(-13.49)	(2.76)	(2.76)
계		45.6	505.9	872.7	1424.2	1378.6
		(3.20)	(35.52)	(61.28)	(100.00)	(96.80)

업, 통신업등 같은 기간의 고용자수 분석과 마찬가지로 주로 3차산업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성장요인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 IM(1.0%) 7.8, RS(98.93%) 770.2, NC(54.66%) 778.5 등으로 경쟁적 요소에 차등변동성장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 IM(3.68%) 8.3, RS(88.49%) 199.8, NC(15.10%) 208.1, 도.소매업 IM(78.14%) 60.4, RS(17.72%) 13.7, NC(5.38%) 74.1 등이고 음식숙박업인 경우에는 IM -1.3 (-9.85%), RS 11.3 (85.61%), NC 10 (0.73%)으로 비례변동 성장효과인 산업복합효과(IM)인 경우 부(-)의 성장을 하고 있어 고용자수 분석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쟁적 요인에 의해서만 큼은 다 같이 정(+)의 효과를 기록하고 있어 제주지역의 관광자원등 관광기반시설로 인한 지역경쟁적 요소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업은 IM -1.4 (-5.85%), RS 24.6 (103.36%), NC 23.2 (1.68%)로 지역의 순수한 경쟁적 요소에 의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좋은 환경조건과 광활한 대륙붕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입지조건이 비교적 양호함에 따라 성장산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같은 지역경제의 총성장효과를 요인별로 보면 거의 2/3 선인 61.28%로 872.7이 차등변동 성장효과인 지역할당효과(RS)로 나타났으며 비례변동성장효과인 산업복합효과(IM)에 의한 성장도 35.52%인 505.9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유리한 입지적 변화에 기인한 지역 순상대적 성장효과(NC=IM+RS)는 전국평균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의 유리한 입지적 변화에 기인된 이 같은 효과(NC)는 그 대부분이 산업구조조 요소에 의한 비례변동 성장(IM)과 경쟁적요소에 의한 차등변동성장(RS)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또한 상기업종 이외에 순상대적 성장효과(NC)가 비교적 큰것은 어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등이며 임업분야만을 제외하고는 미세하나마 전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부가가치 변화-할당분석 (1985-1992)

<표 12> 변화-할당분석(1985-1992) - 부가가치

(단위:억,%)

산업분류	구분	NG	IM	RS	TC	NC
농업		647.9	-275.7	224.1	596.3	-51.6
		(108.65)	(-46.24)	(37.58)	(39.72)	(-38.6)
임업		25.1	-23.7	.8	2.2	-22.9
		(1140.91)	(-1077.27)	(36.36)	(0.16)	(-17.13)
어업		39.7	-8.6	29.9	61	21.3
		(65.08)	(-14.10)	(49.02)	(4.06)	(15.93)
광업		0.6	-0.4	5.6	5.8	5.2
		(10.34)	(-6.9)	(96.55)	(0.39)	(3.89)
제조업		54.5	3.3	17.7	75.5	21
		(72.2)	(4.37)	(23.44)	(5.02)	(15.71)
전기가스.수도업		18.3	-8.9	4.4	13.8	-4.5
		(132.61)	(-64.49)	(31.88)	(0.92)	(-3.37)
건설업		100	107.4	25.5	232.9	132.9
		(42.94)	(46.11)	(10.95)	(15.52)	(99.40)
도.소매업		115.7	-30.7	2.1	87.1	-28.6
		(132.84)	(-32.25)	(2.41)	(5.80)	(-21.39)
음식숙박업		30.7	-2.6	31.7	59.8	29.1
		(51.34)	(-4.35)	(53.01)	(3.98)	(21.77)
운수창고업		70.3	-6.1	8.4	72.6	2.3
		(96.83)	(-8.4)	(11.57)	(4.84)	(1.72)
통신업		26.7	-2.3	-1.5	22.9	-3.8
		(116.60)	(-10.04)	(-6.65)	(1.53)	(-2.84)
금융보험업		32.4	10.9	10.1	53.4	21
		(60.67)	(20.41)	(18.91)	(3.56)	(15.71)
부동산및사회서비스업		79.8	-6.3	-16.8	56.7	-23.1
		(140.74)	(-11.11)	(-29.63)	(3.78)	(-17.28)
사회개인서비스업		50.5	5.6	2.3	58.4	7.9
		(86.47)	(9.59)	(3.94)	(3.89)	(5.91)
일반공공행정		47.7	12.7	5.3	65.7	18
		(72.60)	(19.33)	(8.07)	(4.38)	(13.46)
사회서비스업		57.7	1.6	7.9	67.2	9.5
		(85.86)	(2.38)	(11.76)	(4.48)	(7.11)
계		1937.6	-233.8	357.5	1531.3	133.7
		(91.27)	(-14.62)	(23.35)	(100.0)	(8.73)

한편 1985-1992년간 부가가치를 측정단위로 분석<표 12>한 결과 이 지역에서 늘어난 실질 부가가치 총 성장은 1조 5313억원에 달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사회개인서비스업, 일반공공행정, 사회서비스업등이 대부분 이 기간동안의 부가가치 총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도 고용자수를 측정단위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성장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 IM -275.7, RS 224.1, NC -51.6, 어업 IM -8.6, RS 29.9, NC 21.3, 제조업 IM 3.3, RS 17.7, NC 21, 건설업 IM 107.4, RS 25.5, NC 132.9, 음식숙박업 IM -2.6, RS 31.7, NC 29.1, 운수창고업 IM -6.1, RS 8.4, NC 2.3, 금융보험업 IM 10.9, RS 10.1, NC 21, 사회개인서비스업 IM 5.6, RS 2.3, NC 7.9, 일반공공행정 IM 12.7, RS 5.3, NC 18, 사회서비스업 IM 1.6, RS 7.9, NC 9.5등으로 대부분이 성장산업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부문도 고용자수를 측정단위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미하게나마 성장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요인별 성장효과를 정(+), 부(-)로 분석하면, 전국 경제의 성장력이 아닌 순수한 지역자체의 성장력에 근거한 지역의 순 상대적 성장효과는 농업, 임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업, 통신업,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부문에서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어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사회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등에서 정(+)의 성장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이 부문중 대부분이 산업구조면이나 지역적 입지조건이 유리한 부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제주지역의 경제성장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지역의 유리한 경쟁력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주지역이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고, 관광산업과 관련된 식음료 제조업과 공예품등의 개발로 제조업 부문에서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장의 입지, 수송능력, 산업입지 및 인구이동의 용이성등을 나타내주는 지역할당효과가 분석대상산업에서 통신업과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도 이 지역경제의 성장추세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통신업과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 지역할당효과가 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경제가 이 분야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어업 분야와 건설업, 음식숙박업 분야등에서 꾸준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어 건축건설의 활기와 관광관련산업의 성장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보완적 지역성장률차등 효과에 의한 분석

변화-할당모형으로 분석해 본 지역경제 성장효과는 모두 부가가치나 고용자수절대치로 측정됨으로써 특정부문이 지역경제의 전체성장에 얼마나 더 기여하였는가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있다. 따라서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지역성장률차등 분석기법이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한다. 이 기법을 실제 제주지역 성장에 적용해서 측정해본 결과, 밝혀진 성장률 차등효과는 다음과 같이 간추려 설명될 수 있다.



<표 13> 지역성장률 차등효과분석 (1975 - 1985) - 고용자수 (단위:%)

산업분류	구분	RR	NR	TR	WP	RP
농업		0.006	-0.002	0.008	-0.006	0.014
어업		0.363	0.012	0.351	0.216	0.135
광업		0.002	0.012	-0.010	-0.012	0.002
식료품제조업		-0.015	0.051	-0.066	0.035	-0.100
음료제조업		-0.017	0.003	-0.020	0.005	-0.026
의복제조업		-0.003	0.098	-0.101	-0.087	-0.014
나무및목제품제조업		0.003	0.003	0.000	-0.003	0.003
종이및제품제조업		0.003	0.017	-0.014	-0.016	0.002
인쇄출판및관련사업		-0.012	0.024	-0.036	0.044	-0.080
산업용화학물제조업		-0.00	0.016	-0.025	0.005	-0.029
기타석유및석탄제조업		0.007	0.002	0.005	-0.002	0.007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035	0.030	0.005	-0.029	0.035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006	0.098	-0.092	-0.098	0.005
기계제조업		0.003	0.176	-0.173	-0.176	0.002
운수장비제조업		0.006	-0.006	0.012	0.006	0.006
전기.가스.수도업		0.069	0.012	0.057	0.042	0.015
건설업		0.118	0.131	-0.013	0.185	-0.199
도매업		0.046	0.052	-0.006	-0.041	0.035
소매업		0.076	0.064	0.012	-0.03	0.046
음식및숙박업(관광업)		0.183	0.063	0.120	0.314	-0.194
운수창고및통신업		0.219	0.158	0.061	0.394	-0.333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		0.199	0.113	0.086	0.193	-0.107
사회및개인서비스		0.211	0.151	0.060	0.126	-0.066
계		1.499	1.278	0.221	1.061	-0.840

고용지표를 기준으로 분석 <표 13>한 결과,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

(1975-1985)까지의 제주지역 경제의 총성장률 차등효과(TR)는 0.221로 측정되고 있다. 이 기간중 어업(0.351), 전기가스.수도업(0.057), 음식 및 숙박업(0.12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086) 부문등이 총성장률 차등효과(TR)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하여 농업(0.008), 기타 석유및 석탄제조업(0.005), 운수장비제조업(0.012), 소매업(0.012), 운수창고 및 통신업(0.06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0.060) 분야에서의 성장률차등효과는 미미한데 특히 광업(-0.010)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조업분야와 3차산업중 도매업(-0.006)도 부(-)로 측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중 지역 경제의 전체 고용 성장률차등효과(TR)는 증가율요인(RP)이 -0.84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요인(WP)이 1.061로 워낙 컸기 때문에 정(+)의 효과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가중요인에 의한 성장률 차등효과(TR)만을 살펴보면, 역시 그 대부분이 어업(0.216), 전기.가스.수도업(0.042), 음식 및 숙박업(0.314),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0.193)등의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1985-1992)대에 있어서 제주지역경제의 총성장률 차등효과(TR)를 분석 <표 14>한 결과는, 0.851로 측정되고 있다. 이 기간중 음료제조업(0.036), 기계제조업(0.044), 도매업(0.128), 소매업(0.005), 음식 및 숙박업(0.012), 운수창고 및 통신업(0.109), 금융.보험 부동산(0.125)등이 그것(TR)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하여 농업(-0.006), 식품제조업(-0.539), 종이 및 제품제조업(-0.003), 건설업(-0.007)등에서 성장률 차등효과는 부(-)로 측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중 제주지역의 전체 고용 성장률차등 효과는 보편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중요인(WP)이 0.693이고 증가율요인(RP)도 0.159로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실질성장(0.071)에 대한 기여효과는 농업(0.003), 음료제조업(0.001), 건설업(0.058), 도매업(0.034), 소매업(0.003), 운수창고 및 통신업(0.031)등이었는데 비하여 제주지역 실질성장(0.922)에 대한 그것은 농업(-0.003)이 고용성장면에서는 전국실질성장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음료제조업(0.037), 운수장비제조업(0.003), 도매업(0.186), 소매업(0.048), 음식 및 숙박업(0.015), 운수창고 및 통신업(0.105), 금융.보험.부동산(0.156)등은 상대적인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에서도

<표 14> 지역성장률차등 효과분석(1985-1992) - 고용자수 (단위:%)

산업분류	구분	RR	NR	TR	WP	RP
농업		-0.003	0.003	-0.006	0.023	-0.029
어업		0.005	-0.001	0.006	-0.039	0.046
광업		0.001	-0.010	0.011	0.009	0.002
식료품제조업		0.113	0.652	-0.539	-0.235	-0.304
음료제조업		0.037	0.001	0.036	0.000	0.036
의복제조업		0.000	-0.012	0.012	0.012	0.000
나무.콜크제조업		0.001	-0.003	0.004	0.003	0.002
종이제품제조업		0.001	0.004	-0.003	-0.004	0.000
인쇄출판관련산업		0.010	-0.002	0.012	0.000	0.012
산업용화학물제조업		0.001	0.004	-0.003	-0.003	0.000
기타석유석탄제조업		0.019	0.001	0.018	0.000	0.018
조립금속제조업		0.033	0.010	0.023	-0.002	0.024
기계제조업		-0.002	-0.046	0.044	0.044	0.000
운수장비제조업		0.003	-0.734	0.737	0.733	0.004
전기.가스수도업		0.001	-0.006	0.007	0.004	0.003
건설업		-0.004	0.003	-0.007	0.012	-0.019
도매업		0.186	0.058	0.128	0.026	0.102
소매업		0.048	0.043	0.005	-0.008	0.013
음식.숙박업(관광업)		0.015	0.003	0.012	0.001	0.011
운수창고.통신업		0.105	-0.004	0.109	-0.011	0.121
금융.보험부동산		0.156	0.031	0.125	0.042	0.083
사회및개인서비스		0.191	0.125	0.066	0.117	-0.051
정보통신업		0.005	-0.049	0.054	-0.031	0.085
계		0.922	0.071	0.851	0.692	0.159

다소간의 고용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이 기간중에도 고용성장을 주도한 업종은 상기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지역성장을 차등효과분석 (1975 - 1985) - 부가가치 (단위:%)

산업분류	구분	RR	NR	TR	WP	RP
농업		1.728	-0.013	1.741	-0.072	1.814
임업		-0.221	-0.062	-0.159	-0.270	0.111
어업		0.205	-0.099	0.304	0.081	0.224
광업		0.010	-0.016	0.026	0.015	0.012
제조업		0.254	0.208	0.046	0.168	-0.122
전기가스.수도업		0.099	0.230	-0.131	0.797	-0.929
건설업		0.528	0.054	0.474	0.451	0.023
도.소매업		0.643	0.089	0.554	0.430	0.124
음식숙박업		0.063	-0.007	0.070	-0.033	0.103
운수창고업		0.336	0.034	0.302	0.258	0.044
통신업		0.175	0.015	0.160	0.058	0.102
금융보험업		7.056	0.026	7.030	0.040	6.990
부동산및사회서비스업		0.455	0.068	0.387	0.424	-0.037
사회및개인서비스업		0.157	0.027	0.130	0.811	-0.681
일반공공행정		0.274	0.016	0.258	0.068	0.189
사회서비스업		0.334	0.023	0.311	0.360	-0.048
계		12.096	0.593	11.503	3.586	7.917

1970년대 중반부터 1985년 중반 (1975 - 1985)까지의 제주지역 경제의 총성장을 차등효과(TR)를 부가가치 지표로 분석<표 15>한 결과는 금융보험업, 농업,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등에 의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상기부문의 전국 실질성장(0.593)에 대한 기여효과는 금융보험업(0.026), 제조업(0.208), 도.소매업(0.089), 건설업(0.054),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0.068)등이었는데 비하여 지역 실질성장 (12.096)에 대한 그것은 금융보험업(7.056), 농업(1.728), 도.소매업(0.643), 건설업(0.528),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0.455)등으로 동 부문의 지역성장을 차등효과(TR)가 금융보험업(7.030), 농업(1.741), 도.소매업(0.554), 건설업(0.474),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0.387)을 기록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 전체 부가가치 총성장을 차등효과(11.503)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정(+)의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업, 광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음식숙박업등 전

체적인 부문에서도 지역경제성장에 다소간 정(+)¹의 기여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임업, 전기·가스·수도업 등은 부(-)의 성장률 차등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측정된다. 이같은 지역경제의 총 성장률 차등효과(TR)는 변화-할당분석에서의 구조적 성장을 의미하는 가중요인(WP)과 지역적 성장을 나타내는 증가율요인(RP)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바, 이 기간중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상기 부문의 그것은 각각 금융보험업 0.040과 6.990, 농업 -0.072와 1.814, 도·소매업 0.430과 0.124, 건설업 0.451과 0.023,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0.424와 -0.037등으로 측정되고 있다. 위 분야에서 농업의 가중요인이 부(-)의 효과는 증가율요인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큰 정(+)²의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총 성장률 차등효과(TR)가 정(+)³의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에 부동산 및 사회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비록 증가율요인이 부(-)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가중요인에서 월등히 큰 정(+)⁴의 효과를 기록함으로써 총성장률 차등효과(TR)가 정(+)⁵의 효과를 보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 초반(1985-1992)의 부가가치 지표 분석<표 16>에 의하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 차등효과는 농업, 어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사회·개인 서비스업 등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상기 부문들의 전국 실질성장(1.874)에 대한 기여효과는 농업 0.070, 어업 0.013, 건설업 0.297, 음식숙박업 0.022, 사회·개인 서비스업 0.073 등이었는데 비하여 제주지역 실질성장(1.043)에 대한 그것은 농업 0.566, 어업 0.079, 건설업 0.385, 음식숙박업 0.089, 사회·개인 서비스업 등은 0.117 등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임업(0.003), 어업(0.079), 운수창고업(0.106), 통신업(0.057), 일반공공행정(0.100) 등이 다소간의 지역경제에 정(+)⁶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역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금융·보험등(-0.992) 등은 부(-)의 성장률 차등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체적인 제주경제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장률 차등효과(TR)가 -1.097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역경제의 총 성장률 차등 효과(TR)는 변화-할당 분석에서의 구조적 성장을 의미하는 가중요인(WP)과 지역적 성장을 나타내는 증가율요인(RP)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이 기간중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상기부문의 그것은 2.398과 -3.229로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1985년부터 1992년까지 8년간의 제주지역 경제의 동부문 부가가치 총

<표 16> 지역성장률차등 효과분석(1985-1992) - 부가가치 (단위:%)

산업분류	구분	RR	NR	TR	WP	RP
농업		0.566	0.070	0.496	0.174	0.322
임업		0.003	0.001	0.002	0.001	0.001
어업		0.079	0.013	0.066	0.024	0.042
광업		0.007	0.003	0.004	-0.002	0.007
제조업		0.092	0.596	-0.504	-0.505	0.001
전기가스.수도업		0.021	0.029	-0.008	-0.014	0.006
건설업		0.385	0.297	0.088	0.048	0.040
도.소매업		0.166	0.172	-0.006	-0.029	0.023
음식숙박업		0.089	0.022	0.067	0.018	0.049
운수창고업		0.106	0.082	0.024	0.013	0.011
통신업		0.057	0.048	0.009	0.015	-0.006
금융보험업		-0.992	0.105	-1.097	2.626	-3.723
부동산.사회서비스		0.155	0.253	-0.098	-0.051	-0.047
사회개인서비스		0.117	0.073	0.044	-0.004	0.048
일반공공행정		0.100	0.055	0.045	0.041	0.003
사회서비스업		0.092	0.055	0.037	0.043	-0.006
계		1.043	1.874	-0.831	2.398	-3.229

성장률차등 효과는 -0.831으로 나타나고, 이는 가중요인이 정(+)의 효과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쟁력에 의한 증가율요인이 부(-)의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중에는 지역성장률 차등효과(TR)가 성장둔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지역실질성장률도 성장하고 있으나 전국실질 성장율이 워낙 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제주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취약점

1) 분석대상 기간중 제주지역 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그 성장은 1차 산업인 농업, 어업 부문과 2차산업중 식음료 제품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3차산업부문인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그리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등이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수반하고있다. 그러나 고용지표보다 부가가치 지표로 볼때 지역경제성장이

빨랐고 농,어업과 3차산업 부문이 더 크게 주도했으며 산업의 구조고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분석기간을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1975-1985)까지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1985-1992)까지로 나누어볼때 이 같은 지역의 총체적인 성장성과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 중반(1975 - 1985)에는 크게 실현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1985 - 1992)까지는 비교적 작아 전국의 평균적 성장성과에 머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는 변화-할당분석과 이의 보완을 위한 지역성장률 차등효과분석에 의해서 나타났으며, 1985-1992년 기간중에는 변화-할당분석에 의한 부가가치 지표만의 증가를 보이지만, 1975-1985년 이 기간중에는 고용지표와 지역성장률 차등효과분석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고성장후 저성장' 경향을 제주지역 경제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2) 제주지역의 빠른 성장성과는 농업, 어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부문이 거의 주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비하여 대부분의 2차산업 분야는 제주지역 특유의 지리적, 지역적인 관계로 인하여 제주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그것을 지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편, 변화-할당분석에 의한 제주지역 경제의 총성장(TC)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1975 - 1985)까지는 국가적 요소에 의한 지역성장효과(NG)는 고용, 부가가치지표 공히 정(+)의 효과로 나타났지만, 이 부분이 제주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산업구조적 요소에 의한 비례변동성장효과(IM)와 지역의 경쟁적 요소에 의한 차등변동 성장효과(RS)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유리한 입지적 변화에 기인한 전국평균 이상의 순상대적 성장효과(NC=IM+RS)도 비교적 컸던 것으로 예측된다.

4)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 초반(1985-1992)까지의 제주지역 부가가치 총성장은 91.27%가 국가적 요소에 의한 지역성장효과(NG)로 밝혀졌으며 이 기간중에는 제주지역경제성장에 전국평균 이상의 유리한 입지적 인자에 기인한 순상대적 성장효과(NC)가 8.73%로 미미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1970 - 1985년 사이에는 고용총성장(TC)이 73.73%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

지적 요소에 의한 순 상대적 성장효과(NC)인 것으로 밝혀졌다.

5) 지역경제의 성장을 가장 크게 주도해 온 농업, 어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분야의 총 성장(TC)은 주로 산업구조적 요소(IM) 내지 지역의 경쟁적 요소(RS)에 의한 순상대적 성장효과(NC)에 절대적으로 힘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70-1985년 사이의 그것은 부가가치 지표로 볼 때 96.80%로, 그리고 고용지표로 볼 때 75.9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가적요소에 의한 지역성장효과(NG)와는 상대적인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6) 지금까지 변화-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 차등분석효과에 의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장산업과 취약산업을 보면 1975-1992년간 공히 1차산업인 농.어업분야와 2차산업인 건설업, 식료품 제조업등 소수분야, 그리고 3차산업인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사회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등 전반적으로 3차산업의 성장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 분야는 성장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제주감귤의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과 바나나, 과인애플 등의 시설재배업 생산이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해 품종개량, 재배기술의 극대화, 인력개발을 통한 고능률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앞으로 제주지역 경제를 이끌 성장산업으로 고려되는 3차산업, 특히 관광산업과의 연계추진 방안을 강구하면 충분한 성장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제주도가 관광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제주도가 수려한 관광자원, 독특한 기후, 언어, 습관, 풍속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경쟁요소의 우월성으로 관광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분석결과 각 기간 공히 취약산업으로 드러난 2차산업중 특히 광공업 분야는 자체수요도 충족시킬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 이는 자체시장규모의 협소, 대량 소비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낮고, 용수.용지의 확보, 동력 및 원료의 조달, 양질의 노동력 및 경영인력의 확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미비등으로 광공업분야의 성장지체원인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 분야중 3차산업인 관광관련 산업과 연계시켜 농수산물 투입형의 제조업과 관광공예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우 장래에 일부 2차산업분야도 성장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IV.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개발전략

지금까지 제주경제의 실상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할당 분석과 보완적인 지역성장률 차등효과분석을 통하여 제주경제의 성장가능성과 취약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한 제주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개발 방향

지금까지 변화-할당분석 모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 성장률 차등분석에 의하여 분석해본 결과 1차산업의 농업, 어업, 2차산업의 건설업, 식음료제조업, 그리고 3차산업인 음식및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그리고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등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 경제의 총체적 성장을 주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분석기간중 1980년대 후반보다 1970년대 후반에 성장이 크게 나타나는 결과로 인하여 현재의 산업구조적 문제점의 인식과 산업개발 방향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의 총성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1970년대 후반에는 지역의 유리한 입지적 요소에 의한 순상대적 성장효과에 크게 힘입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전체적인 고른 성장과 함께 특히 국가적 요소에 의한 지역성장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순 상대적 성장효과 가운데 1980년대 후반에는 지역 경쟁적 요소에 의한 차등변동 성장효과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업구조적 요소에 기인한 비례변동 성장효과는 다소간 침체된 면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각 요소에 의한 각 산업성장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스스로 단계별 산업의 구조조정 계획목표를 설정, 과감하게 조정작업을 단행해 나가야 한다. 지역전체 산업구조의 고도화 개편은 물론, 같은 성장산업내에서도 고 부가가치 창출내지 성장유망 업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성장효과를 한층 높여나가야 한다.

둘째, 1차산업중 농업과 어업분야는 그동안 맡아왔던 지역의 반출산업으로서의

제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중점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1970년대 중반이후에 비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지역 경쟁적 요소에 기인한 차등변동성장효과가 둔화되고, 또한, 어업분야는 산업구조적 요소인 비례변동 성장효과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제주지역 경제가 어업부문에 대한 내부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농업인 경우에는 1970년대 수익성이 높고 생산성의 증가가 빠른 감귤, 하우스 농업등으로 구조적 변화를 거쳐왔다.

그러나 1980년대의 자본, 기술 집약적인 시설재배업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제주농업의 성장둔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품질개량이라든가 제주경제의 성장유망산업인 관광산업과의 연계방식으로 1차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셋째, 3차산업인 음식 및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그리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등은 1970년대 후반에는 주로 국가적 요소에 의한 지역 성장 효과와 산업구조적 요소에 의한 비례변동 성장효과에 거의 절대적으로 힘입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국가적 요소와 지역 경쟁적 요소에 기인한 차등변동 성장효과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두 기간 공히 지역의 유리한 입지적 변화에 기인한 전국 평균이상의 순상대적 성장효과가 절대적으로 정(+)으로 측정되고 있어 앞으로 제주지역의 3차산업분야는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한 진전이 전망된다. 이와같은 긍정적인 분석결과는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경쟁적 요인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이와같은 요인은 관광분야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유의 산악, 해안, 동굴, 폭포, 동식물등의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이 지역이 이국적인 문화권을 형성함으로써 제주특유의 전통적인 민속문화등이 타지인과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과거 소홀했던 타 산업과의 연계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넷째, 2차산업중 건설업등 극소수의 부문만을 제외한 광공업분야는 두 기간 공히 제조업이 입지하고 성장하는데 필수조건인 자체 시장규모와 대량소비시장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용수.용지의 확보, 동력 및 원료의 조달등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은 제주경제내 수요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나 단순한 공정과 제주산 감귤등을 주 원료로하는 지역내 투입형의 식음료제조업과 관광산업과 연결시키는 민속공예품의 제작등으로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종합해 보면 그동안 가장 큰 성장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성장이 유망한 것으로 보여지는 관광산업을 기초로 하여 기존산업인 농.수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의 발전을 연계시키고 이를 위한 재정력 확충과 금융지원 정책이 따라야 한다.

2.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개발 전략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화방안은 반출산업(Export industries)의 중점육성과 반입산업(Imported industries)의 진흥을 위한 연계추진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강화방안은 산업부문별 강화와 이를위한 재정력 확충 및 금융지원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1) 산업부문별 경제활성화 방안

(1) 농어업 부문

농업은 그동안 반출산업으로서의 독점적 위치를 누려왔던 감귤, 바나나, 파인에 플등 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농업의 성장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전망된다.²¹⁾ 앞에서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업부문은 계속적인 성장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 곧 농산물 수입자유화란 정의상 농산물수입에 대한 관세 및 물량 규제 철폐를 말하는 바, 이것은 바로 국내가격이 수입가격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써는 농산물의 생산량 변동, 품목별 대체소비를 포함한 소비량변화, 농가의 실질소득 변동, 그리고 농촌고용변동등을 가져온다.²²⁾ 따라서 현재의 개방화 추세를 감안할 때 제주농업은 수입자유화

21) 김태보, 「제주경제의 구조적특성과 성장전망: 지역산업 연관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9, p.156

에 따른 농산물 개방의 확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제주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영농과학화를 도모하는 농업구조의 개선 및 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²³⁾ 첫째, 전 농업의 육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기간농가의 육성과 이를 위한 중장기저리로서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해서는 첨단기술개발에 의한 품종개량, 영농기술개선, 인력개발을 통한 고능률 생산체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21C의 농업은 유전공학등 첨단기술의 혁신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감으로써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인 대처가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성장둔화현상을 보이는 제주농업은 제주경제의 성장산업인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농원, 관광목장, 관광임업등으로 개발·육성토록 하여야 한다. 제주경제에서 관광산업에 의한 농업부문의 진흥방안은 기존 산업인 농업, 축산업, 임업등에 관광산업특유의 서비스 산업적 성격을 가미하여 상업농(agri-business)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면에서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²⁴⁾

또한 제주도는 독특한 아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원예농업이나 관광농원을 계속 연구개발하여 1차산업과 관광산업인 3차산업과의 공동진흥전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도입가능한 관광성 1차산업 개발전략으로는 ① 관광농원의 개발로써 제주도는 감귤, 파인애플, 바나나, 키위등의 아열대성 과실이 풍부하고 위치상으로 최남단에 위치하여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경관등이 수려하여 관광농원을 조성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²⁵⁾ 그러나 관광농원의 과실, 벌꿀 판매 위주의 단편적인 상태를 탈피하고 관광농원간의 경쟁이 없어져야 한다. 따라

22) 허신행,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배경과 대응전략”, 「농협조사월보」, 1987, pp. 10-14

23) 김태보, 「전계논문」 1989, pp.156-157

24) 김태보, “농산물 수입개방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사회발전연구」 제 6집,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1990, pp. 76-78

25) 김태보, 「상계논문」, 1989, pp. 160-163

서 관광농원의 개발과 육성방안은 과실이나 벌꿀등의 농산물 판매 이외에도 관광객이 직접 농작물 재배를 경험할 수 있음은 물론 장기 체류객을 위한 과실채취의 확대와 관광객이 직접 농작물 재배를 경험할 수 있음은 물론 야외위락 및 유흥서비스 활동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규모 단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또한 제주도의 풍물이며 관광객의 호기심을 끌고 있는 유채꽃의 관광자원화 방안도 세워져야 한다. 유채꽃은 이른 봄철 제주도의 산과 바다와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봄철 관광의 특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봉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공재배밀원으로써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가벼운 위락 및 편위시설을 조성하여 유채밭의 공원화를 유도토록 해야한다.

② 축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연계화는 관광목장, 수렵장, 양봉산물의 토산품화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관광목장의 개발은 경유형 관광객을 위한 관광목장을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목장을 중심으로 우유처리 시설을 갖추고 우유채집 및 처리가공 과정을 보여주며 신선한 우유를 관광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관광과 축산업과의 연계화는 수렵장을 개발·육성토록 한다. 제주도내에는 수렵장이 동서로 있으며 인공수렵장으로 2.33Km²의 대유수렵장이 있는데 수렵이 점차 대중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나 자연수렵장내에서는 수렵가능한 주 수렵대상은 평인데 그 수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연 수렵장의 경우는 수렵구역을 지역별로 구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공적으로 평을 육성 방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업과 관광과의 연계화는 제주산 농산물의 토산품화 방안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중에서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꿀, 로알제리등의 양봉산물이다. 양봉산물은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양봉산물이 관광토산품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불량품, 낮은 품질수준, 높고 불안정한 가격체계, 강매행위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²⁶⁾ 따라서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양봉산물을 관광토산품화 하는데 있어서의 개선방안

26) 김태보, 「전계논문」 1989, pp. 161-162

은 우선 품질수준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다. 제주도내 양분된 양봉조합과 양봉협회를 통합하여 품질검사 체계를 일원화하고 강화하여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통합된 양봉단체에 의한 수매를 통해 유통과정에 있어서 불합리성을 개선함은 물론 불필요한 중간 마진을 제거함으로써 제품원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토록하여 판매가격을 저렴한 수준으로 안정화 시키는 것도 요구된다.

③ 수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연계는 관광어장, 관광낚시터, 수산물 직매센터등의 조성에서 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관광어장은 임해어장에서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구류를 관광객들로 하여금 직접 채집케 하거나 채집하는 것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산업관광의 한 형태이다. 제주도는 해안선의 길이가 253km에 달하며 수심 100m 내외의 대륙붕이 광활하게 펼쳐져있고 대만난류, 연안수등의 영향과 온대성 기후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관광어장의 최적지가 많다. 따라서 관광어장의 개발은 어촌부락이 소유하고 있는 비교적 경관이 좋은 임해어장을 개발하여 소라, 조개, 성게잡이, 굴따기, 해초따기등의 작업과 고기잡이 작업을 관광객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며, 해변에는 위락시설이 완비되고 전망이 좋은 휴게소를 설치하여 해녀의 작업관경을 관찰하고 해산물을 시식케 한다. 또한, 장기체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낚시, 보트타기 및 기타 해상레저 시설 및 민박촌을 개발하여 해양의 동적오락을 만끽토록 개발한다. 이와 더불어 해저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해저동식물이 있고 해저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해저공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토록 한다.

(2). 광공업 부문

제주지역은 타도에 비해서 광공업의 부존자원이 너무나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육지부와 격리되어 교통입지적인 제약과 가용수자원 확보난 등으로 중공업 및 기간산업의 발전은 공업입지조건에서 볼때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²⁷⁾ 그러기 때문에 제주공업 육성전략은 관광산업을 성장유망 산업으로 하여 농업, 수산업 및 지역공업을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7) 김성만, “제주지역 공업의 육성전략에 관한연구”, 「논문집」 제 12집, 제주전문대학, 1991, pp. 183-185

제주지역 공업의 업종선택은 농촌 소비품등 지방수요와 강한 연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타기업과 전.후방 관련성이 수평적 통합을 이루고 전국적으로는 수직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평적 통합은 농업이나 지역경제와 연관이 있는 관련업체나 제조업분야 공장의 입지에 의하여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은 농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각 분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은 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고 농업부문의 소득증대는 공산품의 수요를 증대시켜 공업부문의 발달을 돕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기계화로 인해 유희 노동력을 공업부문에 공급할 수 있으며, 농업부문의 발달에 따른 저축이 공업부문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업부문에 대한 기여도 이에 못지않다. 예를 들면, 공산품생산에 따른 농산물의 수요증가와 농업부문의 증대에 따른 공산품 투입 및 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통합은 제주지역 공업이 지역경제의 수요를 충족하고 성장의 혜택을 지역내에 파급 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에 기여할 것이다.

수직적 통합에 의한 지방공업 육성은 국가의 경제발전과정과 연계하는 것이다. 초기 단계의 지방공업은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제품생산을 위주로 하더라도 특정 단계에서는 국가전체의 발전과정과 통합될 수 있는 육성전략을 추진함으로써만이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 및 농촌공업은 분리된 단위로서보다는 지역 및 국가경제체계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국가전체의 경제성장 과정에 편승하여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부존자원 개발형 공업을 지역연고 산업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존자원의 개발을 통한 공업화가 지역연고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존자원의 개발이 가능하고, 판로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시장까지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제주지역 부존자원을 갖고 공업화와 연결시키는 최대의 전략은 1차 산업을 가공원료로 하여 관련기업으로써의 가공처리 공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되 원료의존형, 노동집약형 및 기술집약형 공업의 육성이 바람직하며 이를 육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교통, 동력 및 수자원에 대한 집중개발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지역자원의 공업화 계획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귤, 유채등 제주지역 부존자원에 대한 식음료 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둔

다. 현재 지방특화 산업으로 육성되는 감귤과 유채를 비롯한 경제작물과 축산물 등의 생산량증대에 따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일부는 가공식품으로 제품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또한 일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에 의한 가공식품 소비수요의 증가경향에 따라 그 시장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버터, 치즈, 연유등 낙농제품의 수요가 국내생산수준향상과 병행하여 높아질 것이므로 낙농제품형 공업의 육성으로 특산지의 지위를 확보하도록 해야하며 농수산물의 생산시차를 이용하면 통조립공장등은 연중가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식품가공업의 육성은 현재 본 지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분, 청량음료, 제조공장의 육성면에서도 연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관광소득 잔류효과가 큰 관련산업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고용과 주민소득을 높여나가야 한다. 예컨대, 풍부한 화산암, 용암을 이용한 경량건설재의 가공과 관광객을 위한 토석가공은 제주지역 자원이용면에서 의의가 크므로 지역별 용암의 경량성과 보온성등 특성을 연구조사하여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관광산업부문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인문, 사회적 천혜자원을 지니고 있고 독특한 언어, 풍속, 전설 및 역사적 문화유산과 더불어 웅장한 한라산과 원시림, 사면의 바다, 풍부한 지하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신비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있어 제주관광은 수요, 공급측면에서 볼때 앞으로 상당기간 제주경제내의 성장유망산업으로써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지속될 것으로 고려된다. 이와같이 관광산업이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유망산업으로써 자리를 굳히고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기존의 외발적이고 소극적인 개발위주의 정책지향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관광산업 진흥책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소위 내발적 개발철학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하에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제주도의 관광진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민과 지방정부는 토지로 출자하고 자본가나 공공기관은 자본을 출자하는 공동개발방식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출자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기존의 제주개발공사를 도민주로 공모하여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관광산업분야에 참여토록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결국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소득향상과 그에따른 복지가 고루 나누어질 수 있게 되고 관광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국제관광객의 수용을 위해서는 대형 관광호텔의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병행하여 국내 관광객의 수용을 위한 국민관광 육성차원에서의 유스호스텔, 국민휴가촌 숙소, 국민보양센터, 민박등의 다양한 시설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숙박시설은 현대호텔의 기계화에 따른 냉담한 서비스의 반동적 현상으로 호화스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간결한 시설에 인정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Inn)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의 연령층은 20대가 압도적이므로 이들의 기호에 맞는 유치시설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제주지역의 숙박시설은 호화판 관광호텔외에 다계층을 모든 계절 수용할 수 있도록 관광수요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육성되어야 한다.²⁸⁾

셋째, 제주경제의 산업구조가 제1차 산업중심에서 제 3차 산업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제1차 산업은 과잉노동력이 제3차 산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용 전환에 따른 전직 훈련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구조가 고도화 됨에따라 고급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러한 인력수요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관광관련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원, 대학, 고등학교등의 공급을 고려하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사설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토록 한다.²⁹⁾

넷째, 제주관광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는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구조적인 덤핑판매, 부당한 금품수수행위, 또한 관광객에 대한 강매등 관광부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근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일부에서 무분별한 부조리가 발생하여 관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예를들면, 관광농원과 여행사와의

28) 김태영, 「제주도 관광연구 I」, 백산출판사, 1993, pp. 56-63

29) 고남욱, 김태보,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개발전략: 제주도 김녕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2집, 제주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990, pp. 86-87

부당한 금품수수, 토산품판매점과 유선업체등이 여행안내원과 운전기사에 대한 과잉수수료 지불, 공항 및 항만에서 자가용 영업의 호객행위, 무허가 여행업자의 난립, 가격덤핑등 수없이 많은 관광부조리가 제주도 관광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패현상들은 관광객의 휴식과 건강은 물론 자기개발의 활동을 포기하게 하고 건전한 제주관광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도의 관광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탈법적인 부조리를 바로잡아 공신력있는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관광과 관련된 상거래 질서는 행정당국과 관광협회에서 건전관광 캠페인을 계속 전개함과 동시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경찰의 협조로 관광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때 확립될 수 있다.

다섯째,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관광관련 사업 종사자의 외국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관광종사원의 외국어 사용능력을 볼때에 외국인 관광객중 68.3%를 차지하는 일본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어 구사 가능 종사자는 통역안내원등을 포함하여 별 문제없이 수요에 충족하는 편이지만 관광산업이 제주경제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제1외국어인 영어등 타 외국어 구사가 가능 종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시급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의 각 관광사업체는 장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유능한 종사원중 제주출신 약간명을 선발하여 현지에 파견연수케함으로써 후에 유능한 전문인이 배출되어 주민의 관광사업체 경영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외래자본과 현지주민사이에 조화된 기업운영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사업체나 공공기관, 각종단체등에서 외국어 교육훈련원등을 체계적으로 설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여섯째, 제주도는 위치상 고립되어 있는 관계로 항공과 해상교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No-visa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광을 위한 직항노선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량관광객 유치에 곤란하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관건은 접근도 제고에 있기때문에 현재 일본과의 직항노선을 확대증편하고 대만, 홍콩등 동남아 주요 관광지와외의 직항노선의 개설등을 통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해상교통의 경우도 제주항을 중심으로 대형호화 유람

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해상교통 수단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일곱째,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정보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등과 같이 외래관광객이 각 정류소마다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나 자세한 정보 안내로도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체계가 설립되어야 한다. 제주도 관광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에서 한라산등산, 해수욕, 낚시, 저렴한 숙박시설, 저렴한 식사방법, 교통수단, 민속행사, 기상정보, 교통기관의 운행상황등 관광에 관련되는 최신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여행자가 어디에서나 무료로 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안내, 통역등의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전화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예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공사로 하여금 자사의 컴퓨터 예약시스템과 타사의 예약시스템을 연결시켜 좌석예약과 발권외에 호텔, 렌터카 예약이나 관광정보의 제공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덟째, 제주특유의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토산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우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관광상품은 주로 개별 상품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 상품화하여 상품성을 재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가족단위의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가족단위의 레저분야를 상품화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광 쇼핑 대상의 주류인 관광토산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시장개척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이 분야에 관한 적극적인 행.재정지원을 강화하여 향토성이 있고 실용적인 토산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에 따른 야기되는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의 파괴등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한다. 제주관광개발의 중요한 관건은 자연의 개발, 이용과 장기적 안목에서의 보호, 유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중문, 성산, 표선의 3개 관광단지과 26개 관광지구를 보완하여 개발과 보전체계를 확립하여 양자를 조화시키는 입장에서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되, 개발행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지역이나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강화방안

본격적인 지방자치 단체의 출현으로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개발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여야 한다는 당위명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운용방향을 올바르게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재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보면 첫째,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한다.³⁰⁾ 자주재원 확충은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재조정과 더불어 제주도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자원 이용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등을 도입하여 재정력을 확충토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산재한 부존자원 개발을 통하여 경영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방재정력을 확충토록 한다. 제주도의 자연 및 사회경제적 입지조건상 이용가능한 자연 및 관광자원, 석재등 잠재자원을 개발할 경우 제주도의 중요한 지방수입원이 되어 지방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지방공영사업을 확대운영해 나가는데는 재원의 확보가 제1차적인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아울러 장기 지방채의 발행을 통한 투자재원의 동원방안도 적극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재정의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채 발행제도를 적극 도입토록 한다. 지역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은 매우 유용하다.³¹⁾ 제주지역의 경우 특히 관광단지 개발 및 관광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은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일종의 자본이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흡수하여 지역의 개발자

30) 김태보, “제주지역의 경제개발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논문집」 제22집, 제주대학교, 1986, p.217

31) 오연천, 「지방재정 강화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83, p.79

금으로 재투자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채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은 연차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압박을 주지않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수익이 다년간 걸쳐 발생하는 관광개발 사업의 자금을 충당할 때의 재원으로써 바람직하며,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강제매수케 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한 제2금융권의 역내환류를 촉진케 함으로써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및 개발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미약한 경제 및 개발기능을 중앙집권적 경제 및 개발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강화시켜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능을 독자적으로 행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권과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경제와 관련된 개발계획의 성안이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옴으로써 지역관점에서 지역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관리능력의 미흡으로 지역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개발계획의 조정기능에 주력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개발계획의 입안과 이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와같은 제도개선의 관점에소 불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경제의 육성과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발단지의 조성, 선정 및 시공, 농공 단지의 선정, 조성 및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에 따른 각종 인.허가, 그리고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특화산업의 유치, 육성,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우선순위 선정등의 개발계획 및 상공행정 기능은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제 3섹터]를 도입토록한다. 영세한 투자자본의 지역개발사업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제3섹터]의 설립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3섹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공공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등이 출자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으로 구성된다. 이와같은 [제3섹터]는 통합적인 관광개발계획 및 관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주주가 되어 구성합이 바람직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유관 기관과 민간이 주식 비율을 나누어 투자기관으로써 주주일 뿐 관리경영은 완전히 독립하여 운영토록 한다.³²⁾ 따라서 공공의 행정력 및 통제·조정기능과 민간의 자본 및 축적된 기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관·민 합동개발방식이 되어 상이한 개발주체간의 장점을 살리는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3)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구조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제주경제력의 미약과 제주지역 주민소득의 영세한 소득등으로 성장기반이 취약하고 제주지역에서 조성된 상당부분의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제주지역 기업이나 산업의 성장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발생빈도가 잦고있는 건설업계의 부도와 관광업계의 연계과산등을 고려할 때 금융부문이 실물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은 중요하며 또한 지역금융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제주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전략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부문 자본배분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어야 한다.³³⁾ 실물 및 금융자금의 배분에 있어서 중앙집중성을 시정하며 실물경제를 원활하게 증계하는 금융의 기능을 중시하여 지역금융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는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도록하고, 종래의 금융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은지점이 이 유동성 조절자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분권화 체계가 요구된다.³⁴⁾

둘째, 지역금융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환원금융을 강화토록 한다. 지역의 실질적인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금고대행업무를 가급적 지역금융기관 및 지역환류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전

32) 한국산업개발연구원,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 1983, pp.245-252

33) 김태보, 「전계논문」 1986, pp. 168-169

34) 노영기, “한국지역 금융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논문집」 제2집, 중앙대학교, 1988, p.67

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의 지방채, 지방기업사채의 인수 의무를 강화토록 한다.³⁵⁾ 또한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의 준비금적립, 보험회사의 채입금 준비금 적립중 당해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수신분은 지역금융기관에 예치토록 강구한다.³⁶⁾

셋째,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화시킨다.³⁷⁾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금융업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지방은행은 규모의 영세성, 경영의 비능률, 영업구역의 제한등의 요인에 의하여 그 기능이 약화되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실물경제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자금의 유출을 방지하여 환류시키는 방안의 하나는 지방은행을 지역금융의 중추센터로 육성시키는 데 있다. 지방은행의 업무구역을 지역경제권 중심으로 광역화 시켜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방은행의 기능을 강화토록 한다.

넷째, 제주지역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위해 전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주도내의 대부분의 기업은 중소기업인 관계로 규모가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상이므로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대상 확대, 그리고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확충을 통한 금융자원이 강화되어야 한다.³⁸⁾



35) 노영기, 「전계논문」 p.67

36) 김태보, “지역금융 산업구조 개편방향”, 「내무부 지방금융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 발표자료」, 1987, pp.23-27

37) 김태보, 「전계논문」 pp.23-27

38) 김태보, 「제주도 관광개발과 도민소득증대와 연계 추진방안」, 제주정책학술용역 보고서, 1986, pp.125-127

V. 결론

지금까지 지역경제 성장이론과 변화-할당 분석이론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다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주지역 경제를 대상으로 제주경제의 변화-할당 분석과 지역 성장률차등효과 분석을 통해 동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제주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산업은 농업, 건설업, 도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되는 산업이 성장산업으로 나타났는데 건설업은 최근의 부동산사태등으로 앞으로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농업은 그동안 제주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지만,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면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승수효과는 낮으나 관광공급능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잠재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아 관광산업을 제주경제의 성장유망산업으로 하여 기존 산업인 농업, 어업, 제조업 및 건설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경우 제주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다만, 광공업은 제주경제내 수요라도 충족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제주지역의 산업 활성화 방안은 농업과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광공업의 경우 지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은 농업,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육성전략과 이를 위한 재정력 확충 및 금융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각 산업부문별 육성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산업부문의 육성전략은 농업부문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관광산업과의 연계화에서 모색할 수 있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부문의 육성은 전 농업의 육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개방화시대에 따른 수출 유망작목과 수입대체품을 지정하여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농원, 관광목장, 관광임업등으로 개발 육성한다.

2차산업부문은 현지원료인 농수산 가공품의 식료품 제조업의 육성, 관광소득 잔

류효과가 큰 관련 2차산업과의 연계개발에 있다. 또한, 3차산업부문인 관광산업은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관광산업 진흥책 구현, 관광객 수용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 관광종사원의 외국어 능력배양, 관광촉진활동강화, 제주특유의 관광상품 및 관광토산품의 개발, 지원, 육성,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등이다.

둘째, 각 산업부문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력 확충과 경제개발기능의 강화는 자주재원 확충, 지방개발기금 조성 및 지방채 발행제도 도입, 지방자채단체의 자율권과 자치권 강화, 제3섹터 도입등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각 산업부문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체계의 개선은 금융부문 자금배분권한의 지방이양, 지역환원 금융강화,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 각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강화등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I. 국내 문헌

< 단행본 >

- 1) 강역삼, “제주도 종합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3.
- 2) 김기옥, 「중소도시 개발론」, 대왕사, 1986.
- 3) 김남선, 「지역사회 개발론」, 형설출판사, 1987.
- 4) 김세열,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 창학사, 1986.
- 5) _____, 「제주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성장전망」,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9.
- 6) _____, 「제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전망」,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1991.
- 7) 김태보, 「제주도 관광소득의 경제효과 분석」, 제주대 지역발전연구소, 1992.
- 8) 김태영, 「현대관광학개론」, 백산출판사, 1994.
- 9) _____, 「제주도 관광연구 I」, 백산출판사, 1994.
- 10) 박서호외 6인, 「지역 발전론」, 녹원출판사, 1988.
- 11) 오연천, 「지방재정 강화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83
- 12) 윤영상, 「변화-할당 모형에 의한 지역경제의 성장효과 분석」,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13) 최재선, 「지역 경제론」, 법문사, 1990.

- 14) 홍기용 「지역 경제론」, 박영사, 1988.
- 15) 한국산업개발 연구원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 1983

<논 문>

- 1) 김태보,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개발의 방향”, 「지역사회개발 연구」 제4호, 한국지역 사회개발학회, 1979.
- 2) _____, “제주권 개발을 위한 지역권의 설정과 개발전략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 16집, 제주대학교, 1983.
- 3) _____, “제주지역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산업개발전략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18집, 제주대학교, 1984.
- 4) _____, “농산물 수입개방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사회발전 연구」 제 6집,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1990.
- 5) _____, “제주경제의 실태와 활성화 전략”, 「지역발전연구」 제2집, 제주대학교, 1991.
- 6) 고남옥, 김태보,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개발전략: 제주도 김녕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 2집, 제주대 지역발전연구소, 1990.
- 7) _____, “제주도 관광개발과 도민소득 증대와의 연계 추진방안”, 「사회발전연구」 제2집, 제주대 사회발전연구소, 1986.
- 8) 김안제, “지역경제수준(민력도) 특정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제14권, 1982.
- 9) 김성만, “제주지역 공업의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2집, 제주전문대, 1991.

- 10) 박문정, “지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5집, 경남대학교, 1988.
- 11) 허신행, “농산물 수입개방압력의 배경과 대응전략”, 「농협조사월보」, 1987
- 12) 최병관, “변화-할당분석을 통한 대구도시 경제의 공업성장 분석”, 「도시문제」 10월호, 1975.

<통 계 자 료>

- 1) 경제기획원 : 경제통계연람
경제활동인구년보
- 2) 내무부 : 주민소득연보
지방세정연람
지방재정연람
한국도시연람
- 3) 농수산부 : 농업통계연보
- 4) 노동부 : 매월노동 통계조사 보고서
사업체 노동통계조사 보고서
산업분류약어표
- 5) 제주도 : 제주통계연보
제주도지
관광객 만족도 조사
- 6) 제주도 관광협회 : 관광자료집
관광 30년사
- 7) 한국은행 : 부문분류료
GNP주요지표

제주관광산업의 구조분석(제주지점)
제주지역 경제통계연보(제주지점)
제주경제의 산업구조분석(제주지점)
국민계정
경제통계연보
조사통계월보
지역경제통계

- 8) 교통부 : 한국관광통계
- 9) 통계청 : 산업생산연보
지역통계연보
도내총생산
광공업 조사 통계 보고서

II. 국 외 문 헌

- 1) Andrikopoulos A.A, "A synthesis of the production Function and the Shift-Share Model: A New Regional Modeling Approach",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10, 1980.
- 2) Barff R.A and KinghtIII P.L, "Dynamic Shift-Share Analysis", Growth and Change, vol.9, 1988.
- 3) Bendavid A, An Introduction to Common Descriptive Methods, Regional Economic Analysis for Practitioners, N.Y, Praeger Publishers, 1974.
- 4) Berzeg K, "The Empirical Content of Shift-Share Analysi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8, 1978.

- 5) Brown A, The Framework of Regional Economics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72.
- 6) Bruce Yandale, "Identifying Brand Performance by Shift-Share Analysi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Winter, 1978.
- 7) Dunn E.S.Jr., "The Development of the U.S.Urban System".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1, 1980.
- 8) Esterban-Marquillas J.M, "Shift and Share Analysis Revisec",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vol.2, No.3, 1972.
- 9) Hannu Tervo and Paavo Okko, "A Note on Shift-Share Analysis as a Method of Estimating the Employment Effects of Regional Economic Polic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3, No.1, 1983.
- 10) Henry W, Herzog, Jr. and Richard J.olsen, "Shift-Share Analysis Revised; The Location Effect the Stability of Regional structur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7. 1977.
- 11) Kaldor N, "The Case for Regional Policies",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0.
- 12) Merrifield J, "The Role of Shift-Share in Regional Analysi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14, 1984.
- 13) Nourse, H.O, Regional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8.
- 14) Perloff, H.S., Dunn E.S, Lampard E.E and Muth R.F, Regions, Resource and Economic Growth,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0.
- 15) Richardson H, Regional Growth Theory, London, Macmiclan Press, 1973.

- 16) Richardson H.W, Regional Economics, 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79.
- 17) Sakashita N, "An Axiomatic Approach to Shift-Share Analysis",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vol.3, 1973.
- 18) Shellby D. Gerking and Joseph L.Barrington, "Are Regional Share Effects Constant Over Tim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21, No.2, 1981.
- 19) Stilwell F.J.B, "Regional Growth and Structural Adaption", Urban Studies, vol.6, 1969.

